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여성시대

양희은 . 강석우입니다

이달의 편지
부부가 나이 든다는 건 외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소녀가 돌아왔다

2015 June 06



“저 기은선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세요!”

비즈링&벨소리 무료로 받고! 배스킨라빈스도 먹고!!

이벤트기간 : 2015. 5. 4(월) ~ 6. 30(화)



비즈링

- 대상 : 선착순 1,000명
- 방법 : **신청하기** 클릭!

벨소리

- 대상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 고객
선착순 2,000명
※ 아이폰은 음원 파일 공유만 가능
- 방법 : **신청하기** 클릭하여 음원을
다운로드 받은 후 벨소리로 설정

경품 이벤트

추첨을 통해 배스킨라빈스 싱글레귤러 기프트콘 발송(1,000명)

- 1개월 이상 비즈링 이용 고객 500명
- 벨소리 다운로드 고객 500명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5-1074호(2015.04.29) 게시기원(2015.06.30)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6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규약에 규정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관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800-800-0199) · IBK기업은행은 금품 ·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890, e-mail : ibkethics@ibk.com.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contents 2015년 6월호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1
소냐가 돌아왔다

10 이달의 편지
부부가 나이 든다는 건 외

68 행복을 찾는 사람들
비엔빛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진국, 김정섭 원장



76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2
오지랴 여자 남시오

82 코너 속 편지
고모 엄마 외

104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아빠들의 육아



108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마치고

110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

112 행복한 책 읽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15년 6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광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 이한재, 서미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59 **주소** (121-904)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디컬(02-3443-8005) **표지 작가** 최승미 **월간지**(비매출)

※ 본지는 한국도서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위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91.3 전주 101.7/94.3 마산 98.9 춘천 92.3/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일악)/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92.7 충주 96.1 삼척 101.5/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소냐가 돌아왔다



네덜란드 입양인 소냐 판텐베르흐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소냐가 돌아왔다. 한국 이름 '김은영', 네덜란드 이름 '소냐 판텐베르흐'. 태어난 지 3일 만에 입양기관을 거쳐, 네덜란드에 입양된 입양아다. 1979년 2월 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조산소에서 태어난 소냐는 3개월 후 한국사회봉사회(KSS)를 통해 네덜란드에 입양됐다.

‘머리숱이 많고 까만 머리가 매력적임’이라고 적힌 서류와 함께 네덜란드에 간 갓난쟁이 소냐는 여전히 매력적인 검은 머리를 갖고 엄마를 찾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다.

30여 년 네덜란드인으로 살고 있는 소냐. 검은 머리의 검은 눈동자의 동양인으로 살았던 삶은 녹록치 않았다. 철도 노동자였던 양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양어머니는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입양을 알아보고 그 당시 한국아이를 입양하는 게 손쉬웠던 그들은 소냐를 입양했다. 조용하고 정이 많은 양어머니와 한국 아버지 못지않게 큰소리 잘 내고 투박한 양아버지는 네덜란드의 서민가정으로 아이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부모였다. 소냐를 입양 후 4살 차이의 한국 남자아이를 입양해 남매를 키워내셨다.





소나는 늘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동양인이었던 동네였던지라 검은 머리의 소나는 남들 눈에 유난히 잘 띄었다. 조용하고 평범한 소녀는 사람들의 그런 호기심 어린 눈동자가 부담스러웠다. 학교에서는 또래

아이들의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적대적인 눈빛도 잊을 수 없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에서 책을 읽고 노래를 듣는 일이 더 즐거웠다.

문학을 사랑하는 조용한 소녀 소나에게 한국은 네덜란드보다 더 알 수 없는 나라였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백과사전이었다. 그 백과사전 안에 '제주 해녀'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골똘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았다. 한국 사람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나처럼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 혹시 우리 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나를 낳은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나를 왜 버렸을까. 나는 엄마의 모습과 어떻게 닮아 있을까. 작은 방에서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며 가슴에 물

웅덩이 하나가 깊이 파여졌다.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려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소나가 좋아하는 책은 역사소설과 판타지소설이었다. 역사소설을 보며 세계사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한국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한국의 역사를 보며 내가 태어난 나라의 역사가 이랬구나, 점점 더 흥미진진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게 됐다. 한국학을 공부하며 자신처럼 입양된 한국 입양인들에 대한 자료를 접하게 됐다.

그때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외국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개최되며 2010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강렬한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와 비슷하게 생긴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엔 이상했다. 그리고 이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몇 번 더 한국을 드나들며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뽑혀 5년째 한국에 머물고 있다. 한국에 머물며 내가 태어난 나라의 공부도 하고 엄마를 찾을 요량이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미국인 남자친구를 알게 됐고 사랑스런 딸도 낳았다. 두 살배기 딸의 이름은 '토냐 애령베르흐' 토냐는 돌아가신 양어머니의 이름에서 따왔고, 애령은 남자친구가 지어준 중간이름으로 '사랑하는 언덕'이란 뜻이다. 토냐를 낳으며 자신의 생모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

자신을 낳은 지 3일 만에 '좋은 곳으로 입양해 달라'는 말을 남기

고 조산소를 떠났다는 엄마. 자신의 생일이 2월 10일이면 무척이나 추운 겨울날이었을 텐데, 그 추운 겨울날 갓난아이를 두고 떠나는 어린 여인의 모습이 아프게 다가왔다. ‘그래 21살이면 나이도 어리고, 아마도 미혼모였을 테니 나를 키우기가 힘들어 나를 버렸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

우유를 먹고 뒹뒹 걸음을 떼고 깔깔 소리 내어 웃는 토냐를 보며 ‘우리 엄마는 나의 이런 모습도 못보셨겠구나.’ 안쓰러운 마음도 일어났다. 토냐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걸으며 ‘만약 내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웠다면 이렇게 내 손을 꼭 잡고 걸었을까.’ 상상도 해보았다. 토냐의 돌잔치도 한국식으로 했다. 돌잡이로 판사봉을 잡은 토냐를 보며 엄마가 또 생각났다.

달이 차오르듯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차오르며 엄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다. 자신이 입양됐던 기관을 찾아 기록으로만 남은 엄마의 흔적을 찾았다. 그 기록에 의하면 그의 친어머니는 1979년 당시 ‘만 21세’로 본적은 ‘경기도 이천’, 이름은 ‘김순자’로 되어 있었다. 이 3가지 단서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풍선처럼 부푼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이것저것 알아보던 경찰관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정보로는 엄마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다시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자신이 태어났다는 조산소를 찾았다. 그러나 마포구 공덕동 소재의 조산소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였다. ‘58년 개띠, 경기도 이천, 김순자’를 찾는 건 서울에서 김 서방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올해 소냐는 네덜란드로 돌아간다. 박사학위 논문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네덜란드에서 가서 직업을 구하고, 토냐에게 좋은 엄마도 돼야 한다. 소냐에게 어떤 엄마가 되고 싶냐고 물었다.

“우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나 딸을 지지해 주는 엄마, 칭찬받을 일이 생기면 마음껏 칭찬해 주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격려해 주는 그런 엄마로 살고 싶어요.”

본인이 받고 싶었던 걸 딸에게 주고 싶은 건 아닐까.

소냐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해외로 입양된 입양아들의 트라우마>다. 이미 친부모에게서 버려졌다는 트라우마와 자라면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를 조명한다. 논문을 쓰며 자신의 트라우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된장찌개와 찹쌀을 좋아하고 한국에 와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소냐 판텐베르흐. 그녀의 엄마 찾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엄마가 계산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았던 5년의 시간 동안 행복했다는 소냐. 엄마에게 ‘은영아~’라고 불릴 날을 기대하고 있다. 소냐가 돌아간다.





목소리는 제2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성별, 나이, 신체특성과 감정상태 등 약 200여 가지의 정보가 들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생김새나 성격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라디오는 소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생각을 나누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매체입니다. 어린 시절 라디오에 귀 기울이며 라디오 속 사람들의 생김새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라디오를 듣다보면 고개가 약 45도 정도 옆으로 기울어지며 시선은 위쪽 허공을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 다. 만화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요. 무언가를 상상할 때 나오는 자세죠.

우리가 내는 목소리는 폐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오다가 성대를 지나면서 진동을 하며 나오는 소리입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입 밖으로 소리가 되어 나왔을 때는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 목소리도 각각각색입니다.

여성시대는 매일 청취자의 목소리를 만납니다. 매일 진행되는 ‘음성사서함’을 통해, 또 월요일 코너인 ‘공감사연 공감전화’를 통해 목소리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여성시대를 통해 전달되는 청취자들의 목소리에는 한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그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는 선한 목소리라는 공통점이지요. 다 다른 지역의 다양한 연령층의 목소리인데도 ‘아, 목소리를 들어보니 따뜻한 성품의 착한 사람이군’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착하지만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성시대 대표 목소리인 거죠.

목소리를 통해 청취자들을 만나는 매일 아침을 제작진이 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요?

이달의

편지

- 12 부부가 나이 든다는 건
- 15 동창회에서 추진한 효도잔치
- 20 막장드라마처럼 남편은 떠나고
- 24 할머니 외손자 찾기 프로젝트
- 28 한국에서의 셋집살이
- 32 90세 아버지가 준 용돈
- 35 나는 거북이가 되었습니다
- 38 전기검침원을 아시나요?
- 41 장애인 동생, 세상으로 나아가다
- 45 아들의 틱 장애
- 50 이대로도 좋아요
- 53 손수레 끄는 아버지와 자동차 타는 딸
- 57 적반하장인 딸
- 60 나는 ‘화장실 아저씨’

일러스트 | 이경선
chungpo@naver.com





목 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불려 때를 민 적이 언제였나? 작년 겨울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재작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걸 보니 오래 되긴 했나보다. 매일 샤워를 한다고 해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 시원하게 때를 밀고 바나나우유 하나 먹는 그 행복감이 그리기도 하다.

요즘엔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된다. 등만 밀고 만 원을 내자니 너무 아깝고, 예전과 다르게 목욕탕에 가도 같이 등 밀자는 사람이 없다. 내가 먼저 등 밀자고 얘기하기도 뭐해서 목욕탕에 가도 등을 손닿는 곳까지 밀고 오거나 아예 밀지 못하고 그냥 오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남편이 두 아이 데리고 목욕탕에 갈 때, 나는 혼자 집에서 샤워나 목욕을 하는 편이다.

사진은 어제 일어났다. 샤워를 하면서 손빨래를 같이 했더니 그

동안 가라앉아 있던 때가 붙은 건지 허영계 자꾸 올라왔다. 때가 많 이 있나 하는 생각에 때타올을 들고 때를 미니 팔에서도 때가 쪽쪽 나오고 다리에서도 때가 쪽쪽 나온다. ‘어머, 이게 웬일이래. 목욕 탕에 안 갔더니 완전 때쟁이 아줌마가 됐네!’ 하면서 손이 닿는 곳을 열심히 때를 미는데 무슨 때가 그렇게 길게 잘 나오는지 내 때를 내가 보기도 민망스러워서 얼른 샤워기를 틀었다. 거침없이 나오는 때 들을 보면서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등까지 밀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살이 더 찼는지 팔을 돌린다는 게 겨우 옆 구리에 닿는다. 하는 수없이 거실에 있는 남편을 불렀다.

“여보, 여보 뭐해?”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묵묵부답. 들리지가 않나보다. 하는 수 없이 욕실 문을 뚫으며 열고 “여보~” 하고 부르니 거실에 있던 세 남자가 나를 뺨히 쳐다보는데, 어째 민망하다.

“여보, 나 등 좀 밀어 줘라.”

“이 아줌마가 무슨 등을 밀어?”

“나 때 밀었는데 엄청 많이 나와서 다른 곳 다 밀었는데 등만 밀면 돼.”

“그러게 목욕탕을 가야지, 그냥 대충 닦아.”

“그러지 말고, 좀 밀어 줘라.”

남편은 욕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때가 보였는지 표정이 심상치 않다. 때타올을 한 손에 끼고 내 등을 한 번 휘 훑더니 한마디 한다.

“이게 사람의 등이나? 짐승의 등이나?”

“왜에~ 피부색은 뽀사시 하니 사람 같지 않아?”

남편은 등뿐만 아니라 어깨, 팔, 엉덩이, 종아리 뒤편, 내가 손에 쉽게 닿지 않았던 곳들을 다 밀어주는데, 엄청 시원하다.



“당신은 욕실에서 한참 안 나오더니 뭘 했냐? 때 안 밀고.”

“밀기는 밀었는데, 나중에는 팔에 힘이 빠지더라. 그런데 당신 때 엄청 잘 미네. 목욕탕에 취직해야 되겠다.”

45년을 살면서 이렇게 개운한 적이 없었다. 나는 만족스런 웃음을 짓는데, 남편 얼굴색은 좋지 않다. 내 때를 다 밀어주고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욕실 문을 나서면서 남편은 두 아이들에게 한마디 했다.

“내가 웬만하면 엄마랑 사이 좋게 이혼 안 하고 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빠 이혼해야겠다! 니네 엄마 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 참 드러워서 못살겠다.”

그때 두 아이의 ‘뜨악’한 표정을 난 정확히 읽고야 말았다. 부부가 함께 나이를 먹는다는 건 등을 긁어 주는 게 아니라 등을 밀어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다. 온 몸이 날아갈 듯 시원하다.

Letter 2

동창회에서 추진한 효도잔치



김명애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지 난해 어버이날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동창회를 10여 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지리산 자락으로 워낙 시골이라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다들 서울, 부산, 울산 등 대도시로 나갔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고 시택이 있는 이곳 포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한 명도 없는 이곳에서 오직 신랑만 보고 시택만 다니다 보니 친구들이 너무 그리워 동창회를 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지요.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 있다 보니 동창회도 서울, 부산, 울산, 마산, 구미 등을 돌아가며 했지요. 제가 사는 포항에서도 동창회를 한 번 했습니다. 전국 어디서 동창회를 하던 안 빠지고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작년 동창회에선 서울로 간 여자친구 한 명이 시택 부모님, 친

정 부모님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며 자기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친구들 부모님이라도 모시고 다음 동창회 때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 의견이 모아져 작년 동창회는 고향에서 친구 부모님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걸로 했는데, 생각해보니 참석하실 부모님들 숫자도 많지 않고 아직 마을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있으니 마을 어르신들과 동창 부모님들을 다 모셔서 효도잔치를 한번 해보자는 쪽으로 얘기가 진전되었습니다.

모든 경비는 회장인 친구가 내기로 하고, 고향에 계신 부녀회장님께 말씀드리니 음식은 부녀회에서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수건 100장, 라이브카페를 하는 친구는 유명한 가수나 밴드를 모셔오기로 했고, 다른 친구들은 경품과 소소한 나머지 준비를 맡기로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꼭 참석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날은 다른 약속을 잡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타향으로 이사 간 친구 부모님들도 오실 수 있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고향 떠난 지 40여 년 만에 오셨다는 친구 부모님은 서울에서 출발했다고 하며 너무도 좋아하셨고, 그분들을 오랜만에 만난 동네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셨습니다.

행사 날 아침, 친구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착착 해나갔습니다. 저와 여자친구 한 명은 오시는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부녀회장님이 준비하신 맛있는 지리산 흑돼지 수육에 떡, 과일, 술, 비빔밥이 떡 벌여지게 한 상 차려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식사를 하시고 회관 마당으로 나와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일렬로 서서 부모님들께 감사의 뜻으로 큰절을 올

렸고 '어머님 은혜' 노래도 불러드리고, 밴드의 노래를 몇 곡 듣는 사이 어르신들 노래 신청을 받았습니다. 비록 노래 따로 반주 따로인 노래였지만 모든 분들이 흥겨워하시고, 구순이 되셨다는 회장 친구 어머니는 허리도 꼳꼳하고 아주 정정하여 음악에 맞춰 스텝까지 밟으시는데,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를 경영하는 친구 엄마도 어찌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시는지 친구는 아마도 엄마의 그 끼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듯했습니다. 저는 노래 부를 어르신들을 무대 앞으로 모시고 나오고 또 노래가 끝나면 자리에 모셔다 드리고, 음식 챙겨 드리며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남자친구들은 "딸들이 있으니까 잘하고 좋다" 하며 칭찬을 하더군요.

노래자랑을 마치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을 뽑았습니다. 대상은 프라이팬, 나머지는 다가올 여름을 겨냥해 선풍기 한 대씩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노래 실력보다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위주로 뽑았고, 한창 농사철이라 고사리를 꺾으러 가야하고 고추 모종도 심어야 하는 바쁜 때라 빨리 가실까봐 제일 마지막에 재래시장상품권 추첨을 했습니다. 비록 2만 원씩 다섯 분을 뽑았는데 시장에서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어서인지 그 열기가 제일 뜨거웠습니다.

행운권 추첨에는 지금에 와서야 밝히는데 약간의 주최 측의 농간이 있었습니다. 음식 다 준비하고 동네 어르신들 오시게 연락하며 애를 많이 쓰신 부녀회장님과 편찮은 몸으로 40년 만에 고향에 와서 정말 즐거워하신 동창의 모친을 뽑기 위해 제가 또 발로 뛰었죠.

"부녀회장님, 곧 행운권 추첨이 있는데 번호 잘 가지고 계시죠?"

"응, 잘 가지고 있어."

"어디 봐요. 어디다 흘리신 거 아니죠?" 했더니 "봐라, 여기 호주머니 안에 잘 넣어뒀다" 하며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번호



확인에 들어갔고 무대 앞으로 와서 행운권 추첨을 맡은 친구에게 귓속말로 “야야, 부녀회장님 40번이다” 했더니 “이번 행운권 번호는 40번!”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신 동창 어머니 번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장은 정정당당하게 뽑았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동네 어르신들 이점에 대해서 다 이해해 주실 거죠?

추첨도 끝나고 다들 발로 노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 흥이

오르셨는지 무반주 마이크로 노래를 더 부르고 장구도 치고 모든 분들이 나와서 흥겹게 춤도 추셨습니다. 평소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하던 올 엄마도 나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시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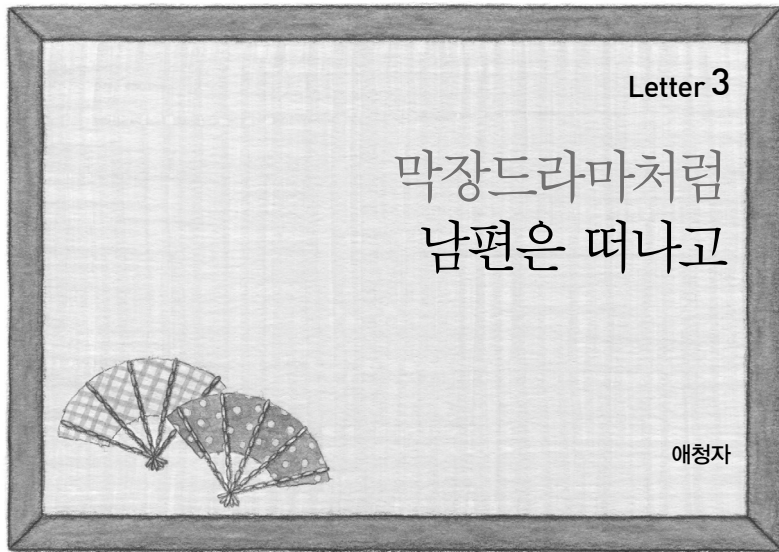
그렇게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수진 한 장과 선물용 김 한 상자씩을 드렸습니다. 반찬 못하고 급할 때 잡수시라고요. 또 부녀회장님의 넉넉함으로 음식이 많이 남아 떡과 음식을 조금씩 싸드렸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며 친구 엄마 한 분이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맙다. 너는 더 이상 늙지 마라. 예쁘다. 이대로만 있어라. 입매며 얼굴이 돌아가신 너 아버지를 꼭 닮았네”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여 년 넘게 동창회를 했지만 늘 우리들만 잘 먹고 잘 놀 궁리를 했었는데 부모님들 모시고 함께한 동창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보람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게 너무도 잘한 일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기특한 생각들을 하고 또 실천에 옮긴 우리 친구들이 장하고 대견합니다. 두메산골에서 다들 잘 자라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며 다시 한번 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참석하지 못한 부모님들은 정말 아쉬워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에 자리가 마련되면 꼭 참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혹시 동창모임이 있다면 친구들 끼리만 추억 만들 게 아니라 친구 부모님들과도 추억 만들어 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니 친구들만 만났을 때보다 몇 배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딸과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출산했고 맞벌이를 하며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던 중, 7년 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장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상대방 여자는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였고, 휴대폰을 파는 가게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2년 동안 남들의 시선을 피해가며 몰래 만났고, 가끔씩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그 여자의 남편이 우연히 불륜현장을 목격하였는데 그 여자에게 '저 남자와 무슨 관계냐?'고 추궁을 했답니다. 그러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그 여자가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눈이 뒤집힌 채로 그 여자의 집으로 달려가 그 여자의 남편과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주먹질을 했고 막무가내로 그

여자를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저는 뒤늦게야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불륜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사실을 숨겨 왔던 것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전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사실을 알고도 하루 이틀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절 헐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부엌에 있던 칼을 저에게 들이대며 이혼을 요구했고, 그 여자와 단 둘이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했습니다. 순간, 남편이 괴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잠에서 깰까봐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3시간을 방에 갇힌 채 공포에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의 요구대로 법원에 가게 되었고 남편은 혹시나 이혼 당일 제가 법원에 동행하지 않을까봐 아침부터 저를 차에 태워 제시간에 딱 맞춰 법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그 여자가 법원 입구에서 보란 듯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십 몇 년을 같이 살아왔던 부부였는데 어쩔 수 없을까요! 그 여자를 본 순간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애들 아빠에게 보냈고, 어느 날 저녁 저는 약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조차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죽기로 마음먹었던 그날 밤, 사춘기를 겪고 있던 아들은 그 두 사람 속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온 아들이 심신이 쇠약해 있던 저를 보고 도리어 위로를 하더군요. 그날 저녁, 전 아들과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나약

한 마음을 먹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늦게 오는 행복이 늦게 가기 마련이에요. 아빠와 아줌마를 용서하지 않으면 엄마 인생은 불행해질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을 그만 미워하시고 엄마만의 행복을 위해 사세요.”

그렇습니다. 그 간단한 방법을 그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그날부터 몸을 추스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혼 후 충격으로 그랬는지 계단에서 굴러 허리를 많이 다쳤었거든요. 아이들과 밥을 지어 먹고 걷기를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몇 달이 지나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 여자의 남편은 두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첫사랑이었던 그 여자의 배신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제 남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난리를 피운 사실에 무척이나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여자와 남편이 사는 집으로 자주 찾아갔고 남편과 싸움을 벌이곤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한 두 사람은 결국 어디론가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은 오로지 자신들만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무모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까지 씻지 못할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했던 저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던 남편의 모습을 고등학생이던 딸이 목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후로 딸은 남자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대학생인데 아직도 모든 남자가 두렵습니다. 같은 과 친구인 남학생들조차 무섭다고 했습니다. 전 이런 딸을 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딸은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무섭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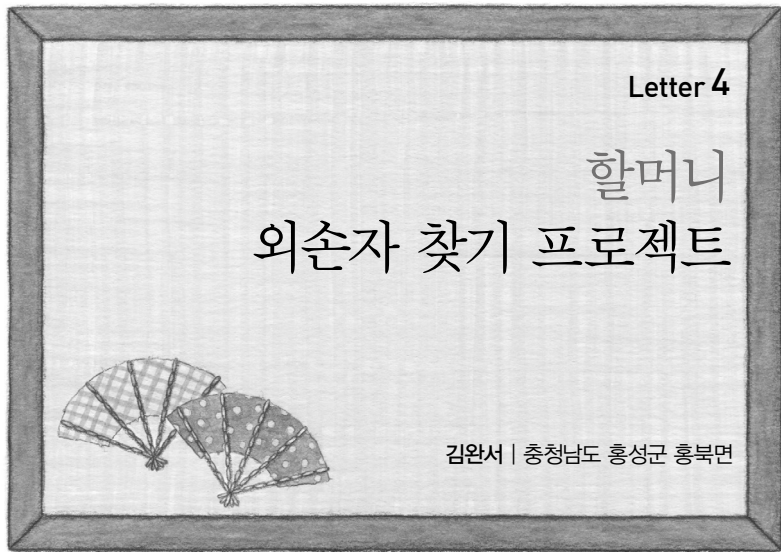
딸은 방학 때마다 알바를 했고 아빠에 대한 결핍의 에너지를 오직

공부에만 쏟아붓더니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들은 하루 4시간 자면서 음식집 알바와 택배를 번갈아 하며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직접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일찍 철이 든 아이들이 고맙고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립니다. 제 지갑에 돈이 두둑해서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용돈도 주고 싶고, 나를 울렸던 전남편과 그 여자에게 당당함을 보여주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씩 그 두 사람이 떠오르면 분노와 원망의 불길이 솟아 올라 혼자 끄끙 앓습니다.

몇 달 전, 동생이 찾아와 언니가 이혼한지도 7년이 지났고 아이들도 모두 자랐으니 이제 언니 삶을 살라며 착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태어나서 맞선이라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불현듯 여태 사랑 한번 뜨겁게 해보지 못한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고 내 나이 신을 향해 달려가며 낯선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설렘에 공연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동생의 말대로 착하고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배려도 있고 정도 많은 사람이더군요. 넉넉한 미소가 참 보기 좋은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이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될지 앞으로 얼마나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즐겁게 힘차게 살아볼 작정입니다.

저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우리 아이들 상처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든든한 동지가 되어 내 아이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봐야 하니까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렵니다.



저는 말썽꾸러기 사내아이 둘을 키우며 시골 작은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여성청소년계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시죠? 이곳은 성범죄자, 가출인, 가정폭력 등의 사건을 처리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며 범죄 예방과 교육까지 다양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때는 2015년 3월 24일 아침 11시쯤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틈으로 꼬물꼬물 들어오는 봄빛에 밤샘당직의 나른함도 잠시 잊고 '말썽꾸러기 아들 녀석들 아빠랑 잘 잤는지, 또 아빠가 저녁으로 라면을 끓여준 건 아닌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할머니와 아주머니 그리고 한 남자 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곧 쓰러질 듯했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서랍

을 열어 작은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상으로 받았다며 "엄마, 힘들 때 먹어" 하면서 줬던 포도맛 사탕을 까서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작은 키의 7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한쪽 눈이 없고,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등이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할머니 곁에 서 있는 아주머니와 남자에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조심스레 말을 건넵니다. 함께 온 일행은 할머니의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딸과 아들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평소 좀 어눌한 분들이라 그런지 말을 더듬고 우왕좌왕 횡설수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분들이 다급하게 경찰서에 찾아오신 이유는 할머니의 외손자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오신 분들은 이모와 외삼촌이었습니다.

할머니 외손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25살 청년으로 어렸을 적부터 외할머니 손에 자랐고 성년이 된 후에도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여기 시골 마을의 작은 회사에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며 작은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딜 좀 다녀온다고 나간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3월 23일 오후에 평소 거래를 하던 은행에서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손자가 그동안 예금한 1,5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해서 일단 지급정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소 안면이 있는 은행 직원은 손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할머니께 얼른 전화를 드린 거였습니다. 함께 온 딸과 아들의 사건에 관한 설명이 대충 끝나자 할머니는 거의 울음에 가까운 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1,500만 원은 내 새끼가 평생 모은 돈이여. 그 돈 없으면 우리 새끼 앞으로 어찌 살 것이며, 혹 그 돈 땀에 뀌어낸 일이 생기면 어찌?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우리 새끼 잘못되면 나는 못살아. 우리 새끼 찾아주소. 내 새끼 돈도 잘못되면 안... 돼...”

할머니 외손자는 전에도 여러 차례 집을 나갔다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오곤 했다는 가족들의 얘기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그리고 1,500만 원이라는 그 큰돈을 인출하려 했다는 것, 순간 머릿속에는 단순 가출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 여성청소년계와 수사과 형사팀 그리고 지역 경찰관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할머니 손자 찾기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습니다. 일단 손자를 ‘가출인’ 그러니까 ‘미귀가자’로 등록하여 전국에 수배 조치를 내리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실시하는 한편 손자의 직장과 현금인출을 하려고 했던 은행 직원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사 중, 손자는 직장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러 왔을 때 낯선 이가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신속히 금융기관과 관내 CCTV를 분석하여 할머니 외손자와 동행한 사람의 인상착의와 현재 렌트 차량을 사용 중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렌트카 회사 직원과 협조하여 실시간 GPS 추적으로 이동경로를 분석하였습니다. 렌트카는 시골에서 서울로 가고 있었습니다. 급히 서울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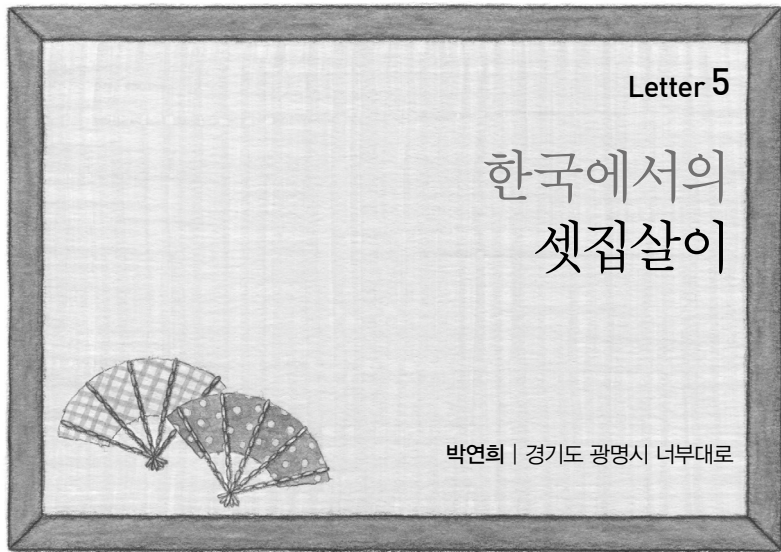
그리고 3월 24일 오후, 사건 신고 접수 후 여섯 시간 만에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은행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던 피의자 3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은행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자마자 손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영영 울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인 피의자가 할머니의

외손자에게 접근하여 여자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통장에 든 돈을 빼앗으려고 갖은 협박을 하며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간 차량에 감금당한 할머니의 외손자가 얼마나 협박을 당했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 큰 청년이 그렇게 영영 울까 안쓰러웠습니다.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오니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외손자가 “할머니” 하고 부르자 할머니는 맨발로 뛰어나와 외손자를 꼭 껴안고 영영 울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 1,500만 원도 물론 안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우리들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가 땅에 닿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를 둔 부모이니, 할머니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돌아오니 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으로 컵라면을 먹으며 우리 팀원들은 또다시 할머니와 외손자를 보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3명의 피의자 중 1명이 손자의 학교 후배여서 보복 등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손자가 지적장애 2급이라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짰습니다. 우선 여성청소년계 수사관과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하고, 관할 지구대에선 할머니네 집과 외손자 직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신변보호 필요시 수사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외손자의 직장에도 낯선 사람이 찾아오거나 평소와 다른 점이 있으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계획을 마무리하고 나니 라면이 퉁퉁 불어 우동이 되어 있었지만, 푹 푹 끓여지는 라면을 김치도 없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는 중국조선족이다. 2010년 11월에 한국에 나온 나는 신문사에 출근하기 위해 구로 디지털단지에 있는 월세 15만원인 셋집을 얻었다. 싸구려 집이라 그런지 황소바람이 들어왔고 화장실은 밖에 있고 샤워는 비좁은 주방에서 서지도 못하고 앉아서만 씻을 수 있었다. 그 집에서 한 달간 머무르다 나와서 동창생의 셋집에 짐을 맡기기도 했고, 탈북자 여성의 집에 짐을 두었다가 40만 원이나 되는 살림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월세와 교통비가 아까워서 먹고 자는 집에 취직도 해봤지만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그 후 친구와 같이 봉천동에 있는 한 다락방에 월세 25만 원을 내고 들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다. 한여름에 친구와 같이 잠을 자는데 앞집에 사는 40대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우리 집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어서 우리가



소리를 치자 천정 위쪽에 올라가 뛰어다니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주인집 아저씨가 우리의 전화를 받고 올라와서 앞집 남자를 한껏 혼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그 다음날부터 우리는 사람 머리 하나 드나들만한 그 작은 창문조차도 열 수가 없었다.

반년도 안돼서 친구가 중국으로 가버리자 나 혼자서 여름밤을 보냈는데 실로 고역이었다. 더운 여름에 출입문을 열어놓고 복도에 이불을 펴고 눕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여 앉아서 누군가 쳐들어오면 방

비할 생각으로 망치를 한 손에 들고 앉아서 잠을 청했다. 새벽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면 방에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겨울에 들어서니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두터운 이불을 두 겹으로 덮고 발에는 양말을 몇 겹 껴 신고 자야만 했다. 난방을 사정없이 틀었더니 한 달에 16만 원의 고지서가 날아왔고 난방을 끄고 전기온풍기를 사용했더니 한 달에 30만 원이란 비용이 나왔다.

2년이란 셋집 만기기간이 되어 옮긴 집은 포장마차 골목의 2층집이라 밤 손님들이 떠들어 대고 환풍기가 천정에 안장되어 있던 터라 소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다. 잠이 든한지라 그런 대로 뒤척이다 잠이 들면 그만이지만 더 큰 어려움은 우리 집 출입문을 화장실로 착각하는 술주정뱅이들의 고함소리였다. 우리 집을 중간에 두고 양쪽이 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집이고 우리 집 출입문이 술집들의 화장실 문과 똑같이 생겨서, 주정뱅이들이 화장실로 알고 문을 열라고 난리를 쳤다. “아저씨, 여기 화장실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래층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뭐 아저씨? 난 총각인데 누가 날 보고 아저씨라 불러.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나오란 말이야. 나도 급하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가버렸나 싶었는데 5분도 안되어 다시 그 손님이 우리 집 출입문을 두들겼다. 급한 마음에 내 입에서 연변사투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총각, 우리 잠 좀 잡시다.”

연변에서 보통 말하는 ‘우리’란 나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거 북한 아줌마 아닌가? 근데 뭐 나하고 같이 자자는 소리 같은데 이 아줌마가 미쳤나?”

그 소리를 듣고 혼자서 킁킁 웃다가 잠을 깨서 밤을 푹딱 새운

적도 있다. 그래도 이 셋집에서 모 방송사로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조선족들의 삶의 한 모퉁이를 반영하는 다큐멘터리를 찍기도 했다.

이전 셋집에 비해 조금 낫다고 해서 옮긴 나의 세 번째 셋집은 다 좋은데 소리가 큰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방음이 잘되지 않아 옆집에서 나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고 그런데다 부부의 목소리가 어찌나 높은지 그들의 기상 소리에 나도 덩달아 눈이 떠졌다. 주방과 화장실을 양철지붕으로 이어 내간 셋집이라 비가 오면 양철지붕에서 쿵 부는 듯한 소리가 연달아 나고 바람이 세게 불면 창문들이 서로 으르렁거리서 꼭 누가 문을 크게 노크하는 것 같아 한밤중에 잠에서 깨기도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된 일에 지쳐서 깨어났다가도 금방 잠드는 내가 그 셋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동네는 그래도 인정이 많은 동네다. 셋집 주인은 옥상에 키우는 채소들을 가져다주기도 했고 옆집 아주머니는 내가 늦게 퇴근하기라도 하면 별다른 일은 없는가 하는 문자를 보내 오기도 한다. 내가 이사한 첫날에는 옆집 아주머니가 수건, 비누, 행주 등을 가져다 주었고 느닷없이 과일을 내다 주기도 했고 나한테 택배라도 오면 한 밤중에라도 전해 주곤 한다.

우리 셋집에 가장 많은 것은 우산인데 무려 14개나 된다. 우리 집에 잠시 머물렀던 지인들이 오가면서 두고 간 것들이다. 이제 9월이 되면 친구 부부가 와서 우리 집에 얹혀살다가 셋집 보증금이 마련되면 나가게 된다. 오지랖이 넓어서 오고가는 지인들을 셋집에 머무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낙이다. 앞으로 돈이 모여지면 더 좋은 월셋집 아니면 전셋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누군가 내 방문을 뚫고 열어보고 문을 달습니다. 아버님이십니다. 아들이 없는 이 집이 너무 허전하신킨가봅니다. 나 또한 남편이 없는 이 방에서 혼자 자려니 잠이 오질 않아 새벽 2시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나이 50이 넘도록 사회생활이라곤 한번도 해보지 못한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떠났습니다. 부모님 그늘에서 학교 마치고 군 제대하고 25년 가까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그이가 부모님과 처자식을 떠나 가방 하나 싸서 영암에 있는 배 만드는 조선소로 갔습니다.

90이 넘으신 아버지는 저하고 얼굴 부딪칠 때마다 물어보십니다. “어제는 일이 어땠는가, 몸은 괜찮은가, 전화 한번 해 봤다냐? 내가 귀가 어둡지만 않으면 전화라도 해보겠는데 그도 안 되고...” 긴 한숨을 내쉬며 식탁에 있는 소주 한 잔을 드십니다.

남편은 6일을 일하고 주말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 남편 손을 보시던 아버님이 “손등이 왜 그러냐냐? 시퍼렇게 멍들고 부어 있는디, 다쳤냐?” 물으니 남편은 “배에서 일하다보면 쇠 덩어리들이 많아서 자꾸 여기저기 부딪히다 보면 멍들기도 해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또 한 잔의 소주잔을 들이키려고 하자 남편이 “숨도 가쁘면서 뭘 놈의 소주를 드신대요?” 하자 아버님은 “내가 숨이 가빠봤자, 너만큼 힘들 것냐?” 하고 한 잔 드시고는 이내 당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만 원짜리 한 움큼을 손에 쥐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왔다, 내가 백만 원 줄 텐데, 거기 배 만드는데 가지 마라. 네 나이가 청춘도 아니고 나이 50이 넘어 뭘 놈의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한다냐. 내가 알아본게 1년 전에도 가스 폭발사고 나서 사람도 죽고 많이 다치고 한데 아니냐 말이다. 이 돈 받고 당장 그만둬라.”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과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듯한 묘한 표정으로 한동안 아버님을 쳐다보더니 “냅두시오. 재호 엄마도 학교 급식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식당에 안 나가요. 정 힘들면 내가 알아서 그만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돈을 받지 않자 아버님은 기어코 주려고 문 앞에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돈 백만 원이 없어서 그 일 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쓰세요. 다른 자식들이 준 용돈 내가 어떻게 쓴대요?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렇게 아버지 쓰세요. 난 걱정하지 말고.”

한사코 받지 않는 아들을 보며 아버님은 방문을 닫고 나가셨습니

다. 남편도 그런 아버지가 측은해 보였는지 밤새 잠을 못자고 뒤척이다 새벽 6시에 밤 한 손갈 뜨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언제 일어나셨는지 아버님은 남편 차의 뒷모습을 거실 창문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며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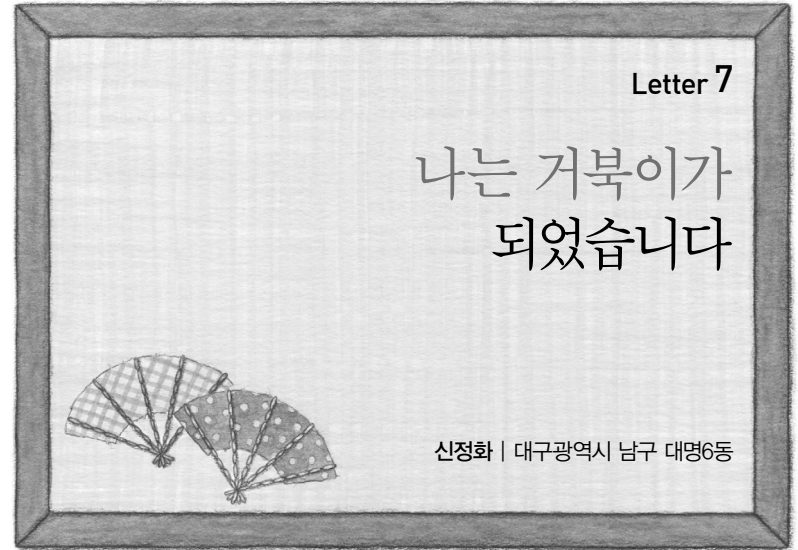
“아버님, 별일 없을까요. 걱정 마세요” 했더니 어젯밤 쥐고 계시던 돈뭉치를 건네며 “네가 한번 애비한테 말해봐라. 그 일 그만 두라고 해라. 아니, 지가 안 번다고 굶어 죽기야 하겠냐! 사람 사는 거 별 다르냐. 살다보면 뭘 수가 생기겠지야! 안 그러냐?”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저 또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언제 그이가 고생다운 고생을 해봤나요? 냅두세요. 고생 좀 해보게요. 뭘 일이야 있겠어요? 애비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갔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 아버님께 너무 잔인한 말을 한 건 아닌지 그냥 듣고만 있을 것인데 괜한 말을 했나 싶었습니다. 아마도 아버님은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라고 속으로 서운해 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집에 온 남편을 보니 무릎에 상처가 있고, 발목도 접질렸는지 안 좋아보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 있어 짠한 맘이 들었지만 일 그만두라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맘을 헤아린다면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도 아버님은 저 혼자 자는 방문을 한밤중에 뻐끔히 열어 불 끄십니다. 아들이 생각나서요. 일흔 살 먹은 아들한테 길 조심하란 말이 있듯이 부모의 존재가 그런 건가 봅니다. 저도 부모지만 저는 아직 덜 성숙된 부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불량 엄마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바쁘다고 대충 먹고 고이젠 집에 있어도 아프다고 대충해주고... 10년 쯤 뒤엔 나도 주부 9단이 되어 아이들의 맛난 저녁식사를 책임지고 싶은데, 그때 애들이 바쁘다고 저와 안 놀아주겠조? 그래서 오늘도 불량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려 합니다.

저는 2011년 ‘골수이형성 증후군’이란 진단을 받고 골수이식 수술을 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 저는 거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하고 나면 하루해가 집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저는 토끼였습니다. 아등바등 이것저것을 살피느라 늘 분주해서 빨리 빠리를 외치는 토끼요! 그래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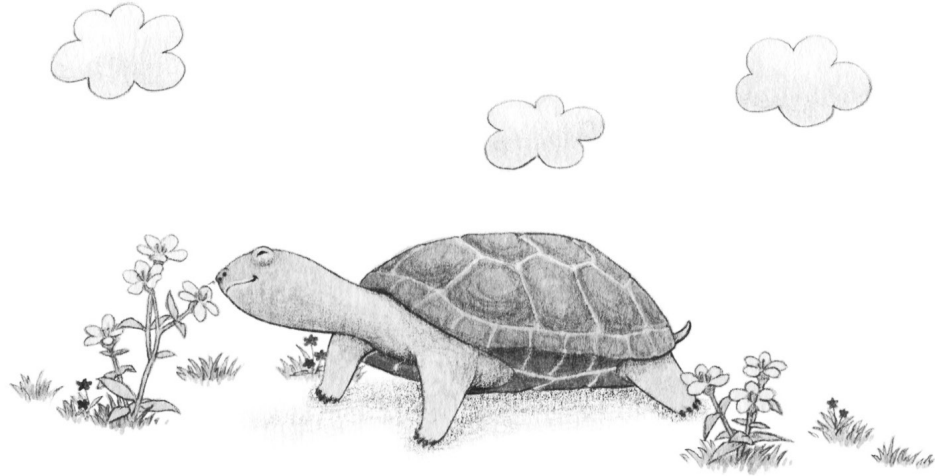
4년 전 병원에서 병을 진단받고 이식을 못할 경우 4개월에서 길

어야 1년이란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는 왜 그동안 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 한번 제대로 못했을까, 왜 실컷 안아주고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을까,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원 없이 사랑한다 말하고 안아주리라 다짐했죠.

다행히 3개월 지나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었고 회복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식 거부 반응'과 여러 부작용으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설렘과 낙담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비로소 옆도 뒤도 앞도 볼 수 있는 거북이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새로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평생 빨리 빨리를 외치는 토끼로 살았다면, 이 어린 내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지 못했겠지요. 일방통행만 하느라 옆도 뒤도 살피지 못하며, 하루가 주는 그 풍성한 만남의 순간들을 놓쳤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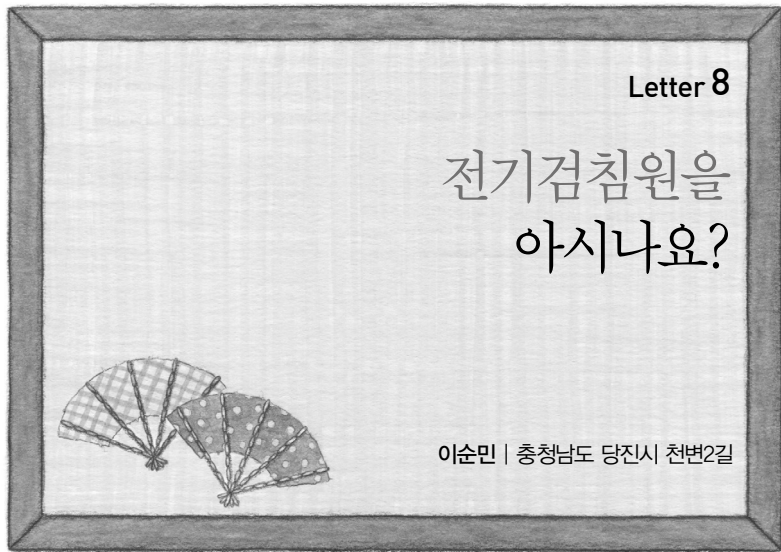
지금의 저는 횡단보도 앞에서 '저 길을 한 번에 건널 수 있을까, 저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 매 순간 용기를 내어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디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이가 그림니다. "엄마! 이래 가지고 나 졸업할 때까지 옆에 함께해 줄 수 있어? 맑은 공기가 좋다고 그러던데 아빠랑 시골 내려가서 지내.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가 보러 가면 되잖아. 엄마 10년 만이라도 꼭 살아내 줘, 알았지? 사랑해!" 그럼 또, 저는 아이들에게 말하죠. "그래. 엄마 지금도 열심히 살아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는 법을 알게 됐어. 이렇게 몇 년째 너희들 곁에 있잖아. 그치?"

그렇습니다. 이젠 압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10년 후의 내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일방통행을 하며 살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가끔 아이들에게 잔소리 폭격을 가하곤 하지만, 전보다 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주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이야기를 물고 오면 마음껏 조잘댈 수 있게 저는 마음과 귀를 한껏 열어 잘 들어주는 '이야기 나무'가 되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에게도 포기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거북이가 된 토끼는 이제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 느낌보 거북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매일 매일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푸근한 추억을 쌓아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야기를 글로 적어 나가려고 합니다. 10년 뒤 최소한 2명의 독자를 보유한 작가가 되어 있겠지요? 그런 10년 뒤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길 오늘도 바라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는 내리진 않는지, 바람은 얼마나 불고 있는지, 너무 춥지는 않은지 창밖을 내다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의 직업이 궁금하시죠? 제가 하는 일은 거창한 건 아니고요.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당진 구석구석을 다니며 전기 검침을 하고 있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는 43세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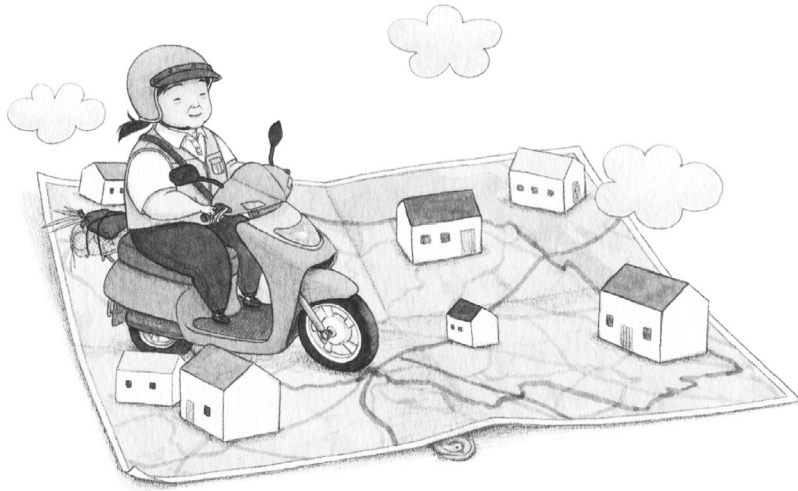
전기검침원이란 직업이 생소하시죠? 전기검침원은 매일 지정된 날짜에 집집마다 방문하여 전기 사용량을 알기 위해서 계량기 숫자를 검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옷이 훌쩍 젖어도, 눈이 와서 바닥이 빙판이 되어도, 오토바이가 날아갈 것 같은 바람이 불어도, 우리 검침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을 합니다. 물론 위

험하기도 하고 장마철엔 비 맞은 생쥐처럼 될 때도 있지만 보람된 순간도 많습니다.

지역특성상 시골이 많다 보니 식사 시간에 검침을 가면 “밥은 먹고 해유? 끼니 거르면 안 되는데 일루 와유~” 하며 같이 밥을 먹고 저의 손을 끌어당겨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눈길을 헤치고 검침을 하러 가면 마치 친딸이 오토바이를 타고 온 거 마냥 걱정해주고 격려도 해주십니다. 마을 분들끼리 둘러앉아 부침개를 부쳐 드시다가도 “이거 일하다가 허기지면 잡썰유~” 하며 비닐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사과를 깎아 드시다가 제 입에 한쪽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파 농사 많이 짓는 지역에 가면 파 한 다발을, 사과가 나는 계절이 되면 사과 한 박스를, 양파가 나는 계절이 되면 양파 한 망을 가득 실어주시는 시골 분들 덕분에 제 오토바이는 각종 인심들로 넘쳐납니다.

반대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서 이웃집에 가서 물어보면 “아~ 그 양반, 지난 가을에 김장하다가 넘어져서 서울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에이~ 그분 지난달에 돌아가셔서 자식들만 가끔 집에 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두 번의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오토바이를 처음 배울 때 오른쪽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논두렁에 빠져서 오토바이를 간신히 건진 적도 있습니다. 또, 진흙탕을 건너다가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가 뺨 돌아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고요. 논두렁에서 벌레 쏘이기도 하고, 산으로 밭으로 다니다보니 진짜 큰 왕구렁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미는 제 친구고, 애기 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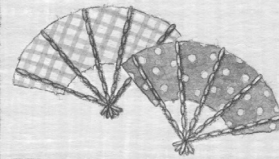
은 귀엽기까지 한 걸 보면, 저도 이제 초보 검침원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검침원의 일거리가 점점 줄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사람이 검침하는 수는 줄고, 단말기가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 검침'이 늘고 있거든요. 일하는 양이 많아야 수입이 유지되는데 일거리가 줄면 수입도 함께 줄어드니 걱정입니다. 하지만 검침원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검침원 25명 중에 여자 검침원은 단 세 명뿐인데 그 중에 두 명의 언니는 올해 신입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신기하게도 우리 여자 검침원은 모두 세 아이의 엄마들이네요. 아마 여직원들의 힘은 가족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 살 우리 검침원 언니들에게도 힘 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당진에 사시는 어르신들! 오다가다 여자 검침원 보면 반갑게 아는 체 좀 해주세유~ 부탁드립니다.

Letter 9

장애인 동생, 세상으로 나아가다



장용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정 신장에 2급인 동생은 경남 김해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자 엄마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왔다. 작은 방에 엄마와 동생을 맞아들였는데 엄마도 뇌졸중 환자이다. 엄마는 특히 날씨에 예민하여 조금만 흐려도 주위의 작은 소리에 민감해지며 귀신이 나왔다고 나를 불렀다. 동생은 몇 번씩 말을 붙이면 겨우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다. 답답한 마음에 되물으면 불끈 성질을 부려 더는 말 붙이기가 힘들었던 동생이다.

아침잠이 없으신 엄마는 꼭두새벽부터 거실에 나와 운동을 하겠다고 다리를 끌고 다니시고 동생은 엄마 뒤를 따라 걸었다. 화장실에도 그림자처럼 엄마만 따라다녔다.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병원이거나 동사무소에 동생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런 통보를 받는 날은 숨이 막힌다. 동생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온갖 애를 써야 했고, 현

관문까지 데리고 나오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

동생은 입을 닫고 살아서인지 목소리라기보다는 알아듣기 어려운 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시집을 한 권 주면서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 하니 고개를 내저었다. 먹고 잠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동생이다. 무조건 음식을 받아주는 엄마와는 달리 나에게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했다. 밥은 누구나 먹는 것 같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먹는 거라는 말도 했다. 너의 형부는 직장에서 일 해서 돈을 벌어오고, 아이들은 학생이니 공부를 하고, 언니는 가정주부로서 살림을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없지 않느냐며 언니가 주는 시집을 읽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말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안 먹겠다.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다. 저녁밥은 주지 않았다.

다음날도 같은 조건을 내세우니 힘없이 시집을 집어 든다. 기어올라가는 목소리는 가까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읽었다는 감동에 칭찬을 해주었다. 같은 시집을 반복해서 읽히며 목소리를 키웠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동생에게 사자성어 한문책을 주면서 매일 숙제를 해야 먹을 것을 줬다. 동생은 조금씩 달라지면서 내 말을 따라 주었다.

우리 집이 불편하시다는 엄마 말씀에 가까운데다가 따로 집을 얻었다. 더 바빠졌다. 반찬을 만들어 날라야 하고 수시로 드나들어야 했다.

남편이 출근하면 엄마 집으로 가서 동생을 데리고 어등산에 올랐다. 운동을 싫어하는 동생이기에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다. 방 안에서만 지냈던 동생의 다리는 보기에도 불안해 보였다. 두 팔을 뻗은

채 걸으면 마네키가 걷는 것 같았다. 한 모퉁이 돌아 동생 오기를 기다리고 또 한 모퉁이 돌아 겨우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 하는 고향을 다섯 번씩 지르도록 하고 가벼운 운동을 따라 하게 했다.

비 오는 날만 제외하고는 1년을 데리고 다녔다. 그렇게 2년을 함께 다녔더니 지금은 혼자서도 어등산에 올라가고 굳었던 두 팔도 보통사람처럼 움직인다. 똥똥했던 몸도 살이 빠지면서 몸놀림이 가벼워졌다. 그게 엇그제 같은데 어언 12년이 흘렀다. 동생이 대견하고 또한 동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대인 기피증이 심한 동생을 노래교실로 데리고 갔다. 회원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 집에만 있는 동생이 노래교실에 오면 사람도 만나고 고향이라도 지르라고 데리고 왔다면서, 먼저 인사도 할 줄 모르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는 정신이 아픈 동생이라고 소개를 했다. 회원들은 자신들의 동생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커피도 타면 먼저 동생에게 주는 회원들, 참으로 고마웠다. 사람들을 싫어했던 동생도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어갔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도 데리고 갔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나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또 했다. 돈을 주면서 물건 사는 법도 가르쳐 주고 은행에서 돈 찾는 법 등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더니, 동생은 이제 혼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줄 안다.

그동안 걸려오는 전화는 엄마가 받으셨는데 동생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동생은 못한다고 안한다고 버렸다. 처음엔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수화기를 들었다 그냥 끊어버렸다. 전화를 걸 때마다 애가 타고 속이 상했다. 반찬을 만들어 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도 많았고, 문 열어 달라고 큰소리로 부르면 딸의 말이 귀신 소리로 들렸

다는 엄마 말에 화도 났다.

의심증이 많은 엄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세상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동생 때문에 갈등도 참 많았다. 먹고 싶으면 먹고, 하기 싫은 일은 안하면 되고, 자고 싶으면 자는 동생이 때론 부럽기까지 했다. 정신장애라는 이유로 형제들도 등을 돌린 동생이지만 동생도 예쁜 여고생 시절이 있었다. 한창 예쁠 나이에 채 피어 보지도 못하고 스러져 불혹의 나이를 먹어 버린 동생이 안쓰럽고 가슴 아파 흘린 눈물도 참 많았다.

방안에서 현관문까지도 나오기 힘들었던 동생이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 전화벨이 울리면 달려가서 전화도 잘 받는다.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 주지 않던 동생이었지만 동사무소나 정신센터에서 가정 방문을 오면 누구냐고 확인하고 맞이하는 동생으로 달라졌다.

센터에서 가는 야외 나들이는 동생에게는 세상 구경을 시켜주는 천국이다.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흔쾌히 따라나설 줄도 안다. 같은 말을 몇 번씩 물어보면 고개만 끄덕이던 동생이었는데 요즘은 목소리 내어 묻고 대답도 할 줄 안다. 센터 선생님이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을 혼자서도 잘 다닌다.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다.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말을 걸면 화부터 냈던 동생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쯤 장애 3급이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불통인 내 동생,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기필코 세상을 등지고 어둠 속에 갇힌 동생을 밝고 환한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동생이 앞으로 센터에 나가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본다.



제 아들이 눈을 깜빡거리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었습니다. 그것이 틱장애라는 것을 모르고 당시에 저는 그냥 안 좋은 습관이라 여겨 볼 때마다 야단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지 말라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자 저는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아들이 ‘눈을 깜빡이는 것은 틱장애이며 일 년 이내에 90%는 저절로 없어지는데 야단치거나 주의를 주면 오히려 강화되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상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희한하게도 아들이 옆에 있으면 제 몸이 근질거려 눈 좀 가만두라고 자꾸만 야단을 치게 되었죠.

그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 것은 아들이 6학년이 되고 한참 후,

즉 눈을 깜빡이게 된 지 일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아~ 아~”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시도 때도 없이 “아아 음음” 소리를 내는데 이젠 더 말로 못할 고통인 겁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턱은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흔드는 등의 운동턱과 소리를 내는 음성턱, 둘 다 같이 오는 뚜렛장애라는 것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들은 일 년이 지났으니 만성인데다가 눈도 깜빡거리고 소리도 내는 복합턱으로 문제가 커져버렸습니다. ‘처음에 눈 깜빡일 때 관심두지 말 걸 공연히 야단쳐서 이렇게 악화가 되었구나’ 하는 죄책감은 이루 말로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저는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활달했고 학교에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대체로 좋아진다고들 했지만 아들은 만성으로 완전히 넘어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조용한 수업시간에 “아아 음음” 소리를 내면서 친구들이 차츰 아들의 문제를 파악했고, 시험을 보는데도 소리를 자꾸 내니 급기야 ‘장애인’이라고 놀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을 해댔고 저는 저대로 죄인이 되어 울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얼마나 못된 엄마였냐 하면, 턱이 일 년 내내 있는 게 아니라 완화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소리를 안 내면 그때부터는 언제 턱으로 괴로워했었느냐는 식으로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턱으로 고생할 때는 공부 못하면 어쩌냐 싫다가도 좀 나아지나 싶으면 “그동안 못했던 공부해야지” 하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서천석 선생님께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저에게 뜨끔한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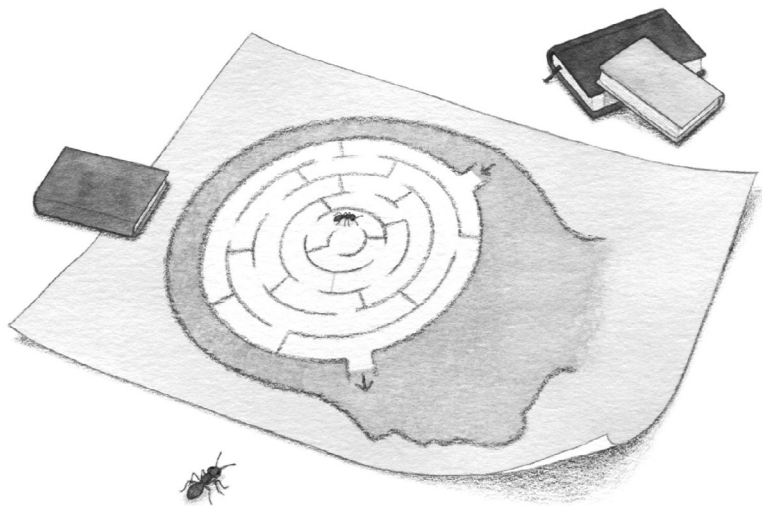
“엄마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들의 턱이 낫길 원하는지,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을 원하는지.’ 결국 아들의 문제는 제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장기 복용을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부작용은 없다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지만 주변에서 ADHD약이나 뇌 관련 약을 먹으면 아이가 소위 좀 멍청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약 먹이길 주저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병원에서도 우리 아들이 만성턱이니 초창기에 잡아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병원이 없고 “좀 더 지켜보다가 더 심해지면 약물치료합니다”라는 소리만 들어 또한 망설였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턱이 좀 더 심해져서 이젠 완화가 없이 일 년 열두 달 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없던 턱이 또 추가되어 목에서 돌고래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덜컥 겁이 나고 무서웠습니다. 정말이지 공부 는 이제 그만 시키고 대안학교를 보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턱의 치료 방법 중 습관 반 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혐오스런 턱 증상을 수용할 수 있는 증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아” 하는 소리를 “크음” 하고 헛기침을 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크음, 헛헛” 하는 식의 기침 소리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합니다. 돌고래 소리가 나오면 바로 “크음” 하면서 헛기침을 하고요. 그렇게 아들은 나름대로 대처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완전히 턱 증상을 무시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신경은 쓰이지만 내색은 전혀 하지 않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병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의 균형이 맞지 않아 턱이 생길 수



도 있으니 뇌 균형을 잡아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뇌파 검사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정상인의 뇌와 제 아들의 뇌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약물치료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치료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엄마와 떨어져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생각하며 '애가 엄마 품을 떠나서 틱까지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울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면 저는 아들 모르게 약효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들을 관찰합니다. 아주 안 좋을 때보다는 정말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다 나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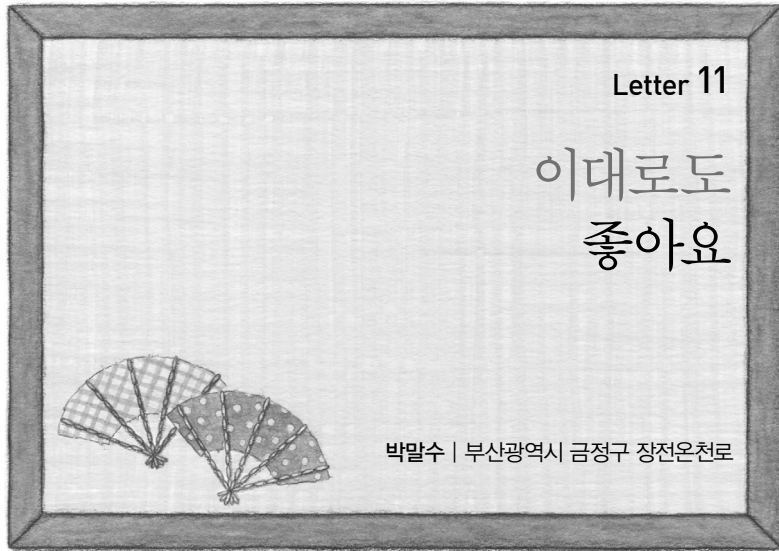
고등학생 아들은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께 자신은 틱으로 소리를 내니 신경 쓰여도 신경 써주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만나 아무도 놀리지 않고 기숙사에서 한방 친구들이 다 배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들이 중간고사 스트레스 때문인지 틱이 조금 악화

되어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제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엄마, 고등학교 생활이 즐거워"라고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가슴속 묵직한 바윗돌이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고 지겨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지,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아들은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기숙사 친구들과 수다 떨다 잠자리에 들 때면 하루가 보람되다고 합니다. 주말에 짬 내서 좋아하는 축구하고, 지적장애인센터에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본인은 뇌를 연구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진로를 정했습니다. 틱장애를 고치고 싶고, 치매를 앓고 있는 외할머니도 고쳐드리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올해 첫 모의고사에서 국·영·수 전국 1등급이라는 놀라운 성적까지 받아낸 우리 아들, 정말이지 자랑스럽습니다.

처음 틱이 생겼을 때 아들을 지지하고 스트레스 주지 않았으면 나았을 텐데, 예민한 엄마의 무식한 대처와 스트레스로 아들이 틱을 평생 친구처럼 갖고 지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틱 있는 의사도 많은데 아무도 놀리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소위 리더로 성장하면 아무도 널 무시하지 못하니 지금 이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길 바란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충고대로 우리 아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 이미 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언제쯤 그리 될 수 있을지. 이 사연을 보내면서 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자녀의 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저처럼 우매한 행동을 하지 마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며 칠 전부터 슬슬 눈치를 살피다가 남편에게 말을 건넸다. “우리 시장이나 한 번 가볼까요?” 남편이 좋다고 했다. “그럼 우리 내일 시장에 가요” 하니 “일요일은 당신 성당 가느라고 바쁘지 않겠어?” 하기에 내가 좀 서두르면 된다고 말하고 다음날 시장에 함께 가기로 했다.

시계의 알람시간을 5시 40분에 맞춰 놓았다. 아침에 알람이 울려 벌떡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성당으로 향했다. 아침 기온이 생각보다 쌀쌀했다. 차가운 기온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싫지가 않았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다. 사람은 누구나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더니 그 말이 진실로 내게 다가왔다.

남편은 얼마 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내가 생

각하기에 암이란 존재는 무조건 무섭고 두려운 건데 남편은 다행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멀쩡한 사람처럼 오히려 나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 다독였다. “이 사람아, 뭘 걱정해.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자네는 뒷바라지만 잘하면 되는 거니 걱정 마.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내 맘만 편하게 해줘.” 남편의 그 말에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여 몸 둘 바를 모르겠다.

난 남편과 살면서 항상 내가 참고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보다. 강한 성격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본인보다는 가족을 우선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생각만 해도 무서운 병에 걸려서도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게 옆에서 보기에 너무도 가슴 아팠다.

간간히 나의 멍한 모습을 남편에게 들켜곤 했다. 남편 말이 맞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나도 무거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벼워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 앞에서 너스레를 떨곤 한다.

그래서 물건 사는 데도 함께 가자하고, 물건을 사러 가셔도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남편에게 묻는다. 비싼 건 아니라도 이 봄에 입으면 좋을 것 같은 옷을 두고 서로 권하며 한 가지씩 샀다. 먹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남편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병에 좋다는 식재료를 이것저것 사서 담고 건강한 사람들 틈새를 누비고 다녔다. 그렇게 남들처럼 다니니 남편의 병이 이미 다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시장을 본다거나 쇼핑을 한다는 건 엄두도 못 냈다. 그래도 이만해서 함께 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게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너무도 고마운 마음에 양쪽 어깨에 날개를 달고 두 다리에 바퀴를 단 것처럼 돌아오는 길이 한없이 가벼웠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수술실 문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열어 보고 너무 심하면 수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남편을 수술실에 보내고 그때부터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이 사람을 이대로 보내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울고 또 울었다.

4시간 수술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는데 다행히도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나 나를 알아보는 순간,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고맙고 감사했다. 그 순간 다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이 다음에 절대 후회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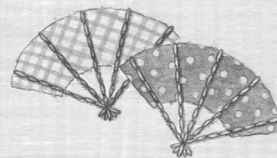
남편의 수술 후 우리는 많이 달라졌다.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몸소 알게 됐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밖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절 주절 이야기하면, 남편 역시 운동하러 나갔다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아주 다정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며 기분 좋게 지내니 병이 빨리 회복되는 것 같다.

얼마 전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세에 비해 회복이 참 빨라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만 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모든 것은 본인의 의지와 밝은 생각 덕분인 것 같다. 계속 이런 나날들만 이어진다면 나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Letter 12

손수레 끄는 아버지와 자동차 타는 딸



조정신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제 시부모님은 시골에 사셨는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시아버님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혼자만의 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했지만 저에게 시누이인 막내딸의 간곡한 권유로 딸네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의 집은 방이 4개나 있는 크고 넓은 고급 아파트였기 때문에 아버지 전용으로 방도 드릴 수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딸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파트를 오르내리기도 불편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을 여럿 거쳐야 하니 산새가 새장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아파트 생활에 좀 익숙해지자 구경삼아 거리도 익힐 겸 시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손수레에 폐지를 가

득 싣고 노인이 언덕을 힘겹게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언덕을 다 오른 노인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잠깐 쉬면서 나이라도 비슷하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노인 분 말씀이 시간 보내고 운동 삼아 하기에는 폐지 줍는 게 최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께 생각 있으면 한 번 해보라고 권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딸에게 누가 될까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하게 농사를 지었던 아버님은 별다른 취미도 없으셔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따분하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은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곳에 폐지를 모아두기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였고, 돌아다니다가 종이 박스를 발견하면 들고 와서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끄는 캐리어로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처음 아파트 생활을 할 때는 새벽에 일찍 잠이 깨면 고이 잠을 자는 딸 가족에게 방해가 될까봐 거실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서 멍하니 앉아 날이 새기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와 신선한 새벽 공기도 마시고, 운동 겸 소일거리로 폐지를 주우며 활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폐지 양이 많아지자 리어카로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리어카로 경사로를 끌고 가다 보면 길 가던 사람이 가끔 뒤에서 밀어주는 경우를 보고 고맙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해가 질 무렵, 아버님은 폐지를 가득 싣고 경사로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은 본인이 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학원 강사를 하던 딸이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차에 동승하고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차가 더 밀렸습니다. 운전을 하던 딸이 저 앞을 보니 수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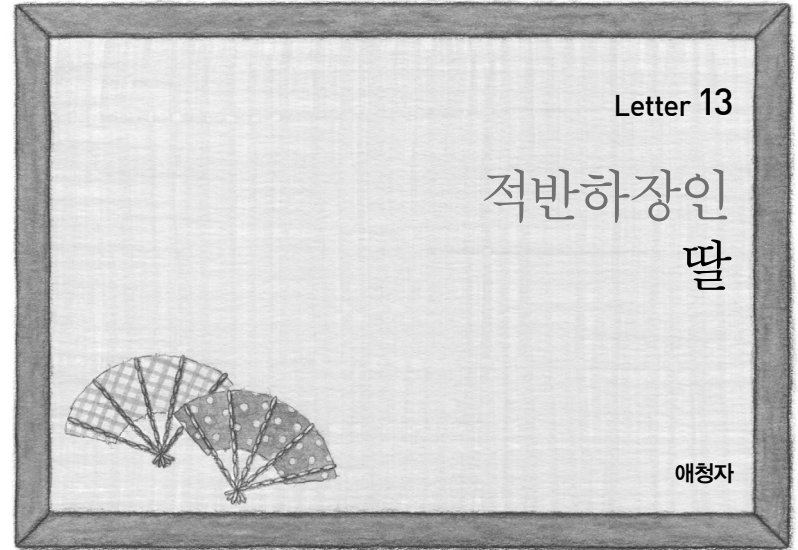
막혀 차가 제대로 빠져 나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어카를 뒤따르던 자동차들이 ‘뽕~뽕’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앞 차들은 차선을 바꾸어 빠져 나갔습니다. 이윽고 딸 차가 리어카 바로 뒤에 다다랐을 때 낮익은 모습의 아버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딸은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함께 탄 동료 선생님들이 의아해 하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앞에 수레 끄는 분이 우리 아버지야” 하면서 내려서 수레를 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함께 차에 탔던 선생님들도 내려서 같이 밀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레는 언덕에 다다랐고 도로는 갑자기 뽕 뚫렸습니다. 아버님은 리어카를 밀어준 선생님들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딸은 태연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밥 맛있게 해 놓을 게요” 하면서 손을 흔들고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폐지를 내려놓고 아버님은 딸집으로 터벅터벅 향했습니다. 딸과 가족들 보기가 좀 민망하였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삶은 돼지고기에 막걸리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폐지 줍는 것, 우리 가족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으시면 저를 의식하지 마시고 땀땀하게 하세요. 그러나 도로는 위험하니 너무 많이 신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그 이후 손녀들도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학년이 바뀌면서 친구들이 버린 책을 모아 한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값지고 고귀한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고 효가 땅에 떨어진 요즘, 진정한 효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너무도 멋진 시누이와 아버님입니다.



분 잡고 싶지만 세월은 그냥 흘러가네요. 흐르는 물처럼 세월을 따라가고 있지만 너무도 힘들고 지칩니다. 일 년 농사도 가을이면 풍성하게 결과가 돌아오는데, 평생 농사인 자식 농사는 언제까지 밑거름을 주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60살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딸이 20대 초반에 보증을 잘못 서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저희 부부가 15년째 갚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을 통해 삭감을 받기도 했는데, 빚이 그것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잊혀질만하면 여기 저기서 빚 독촉이 들어옵니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딸에게 빚이 대체 얼마지 속 시원히 말을 해보라,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야 하냐고 물으면 “이젠 없다, 다 갚았다”고만 하고, 얼마 후면 또 다른 빚 독촉이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위에게 딸의 빚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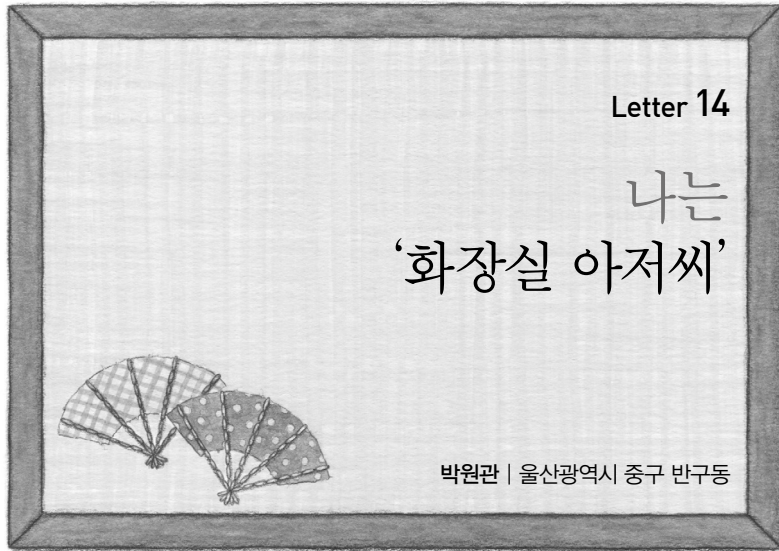


딸은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마흔 살이 다 돼가는 딸은 엄마인 제 카드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다가 못 갚으면 카드 정지가 되곤 해서 제 모든 카드를 이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은 제가 사 위에게 빚에 관한 얘기를 해서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고 난리를 칩니다. 부모는 빚 갚아주느라 허리가 휘는데 부부 사이 나쁜 것까지 이젠 엄마 탓이라며 원망을 합니다.

작년에 그 일이 있고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고, 불일이 있어서 집에 왔다가도 인사는커녕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말도 안합니다. 보다 못한 막내아들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엄마 탓이니 엄마가 먼저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딸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다 보니, 딸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외손자도 6년간이나 키워주었는데 이제 와서 나쁜 일은 다 엄마 탓이라니요! 자식에게 무슨 보상을 바라고 뒷바라지하는 부모는 없겠지만 우리 딸, 해도 너무합니다.

이 아픈 가슴과 썩어서 문드러진 내 마음은 어찌나요? 이제 두 아들과 며느리 볼 면목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딸 빚 갚는데 들어간 금액이 일억이 넘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는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이 막막한 터널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본명보다는 '화장실 청소 아저씨'로 더 잘 통하는 올해 나이 60세의 회사원입니다. 제가 청소하는 화장실은 현장 근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으로 소변기 2개, 좌변기 4개, 세면대와 거울이 갖춰진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제가 10년 전, 이 회사에 다닐 때는 월급을 받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가 6개월 전에 다시 와보니 그때의 청소 아저씨는 힘들다고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또 다른 아저씨와 아주머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청소가 3D 업종이라서 그런지 다들 힘들어 못하겠다고 떠나라고 없었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근로자는 많은데 비하여 아무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지저분하고 악취가 심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선박 블록의 용접 일을 하는데 동료들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저를 형, 또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동료들이 “박 형, 커피 한잔해요!” 하는데 평소애 커피를 좋아했던 저였지만 불결한 회사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볼 것을 생각하니 커피 마시는 것도 참아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종일 지내면서 용변을 보지 않고 참고 또 참아서 집에 가서 보려고 식사 후에 물도 거의 안 마시고 소변이 마려워도 억지로 참았는데, 너무 오래 참다 보니까 배가 아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때 겨우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회사 동료들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다들 냄새 나고 더럽다 하면서도 힘들다고 아무도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해보면 어떨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회사 화장실 청소를 하면 다른 동료들이 놀리거나 않을까, 냄새 난다고 옆자리에서 피하거나 않을까, 혹시 왕따시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사는 집 주변의 길거리 청소를 약 1년간 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이것저것 따지고 고심하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쓰레기와 오물로 더러워진 화장실을 부분적으로 조금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소하지 않은 부분이 웬지 자꾸만 눈에 거슬렸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씩 틈을 내어 청소하던 것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인 새벽에 출근하여 화장실 청소부터 깨끗이 해놓고 업무를 시작한답니다.

제가 청소를 시작하자 현장 근로자와 사무실 직원 할 것 없이 화장실에 볼일 보러 왔다가 깜짝 놀라며, “형님! 왜 청소해요? 형님이 청소해 주시니까 깨끗하긴 한데 힘들잖아요?” 하며 다들 한마디씩 하더군요.

제가 회사 화장실 청소를 시작한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네요. 하

루도 안 빠지고 매일 청소를 하다보니까 '화장실 청소 아저씨'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베트남 근로자 '디엘판'과 '나구엔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면서 더듬거리는 말투로 "형님, 최고야... 최고!"라 했고, 중국사람 전금덕, 최수일 씨도 최고라고 치켜세우더군요.

저는 청소를 해도 그냥 대충하지 않고 타일 바닥과 벽면, 화장실 칸막이, 변기, 세면대, 거울, 창문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수세미에 세제를 문혀 팍! 팍! 문질러 닦고 물로 씻습니다.

하루는 회사 관리과장님이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이름과 소속을 물었고, "청소가 쉬운 일이 아닌데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화장실 관리가 쉽지 않아요" 하시더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말과 글을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변기 안에 사용한 화장지 넣지 말라>고 글을 써 붙여도 소용이 없더군요. 수압이 약한 곳이다 보니 변기가 유난히 잘 막힙니다. 변기가 막힐 때마다 관리부 직원이 와서 뚫는 기계로 배관 청소를 했는데 그게 아주 번거롭고 지저분하여 변기가 자주 막히는 곳은 아예 문을 열지 못하게 못을 박아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풀렸는지, 그 다음날에는 대못을 빼어 내고 뺑 뚫는 기계로 배관 청소를 해주곤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화장실 안에서 불일 보는 사람들이 화장실 내부 벽면과 출입문에 웬 낙서를 어찌 그리도 잘하는지 어떤 낙서는 매직으로 시커멓게 되어 있어서 수세미로 팍팍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았습다. 회사에서는 낙서가 보기 싫다고 낙서 위에 페인트로 칠해 놓았는데 그 페인트가 겹겹이 쌓여 두툼하더군요. 저는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 혼자 남아서 주걱처럼 생긴 도구로 페인트를 긁었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나니까 1시간이 넘게 걸리더군요.

회사에서 화장지가 지급되지 않을 때는 제 돈 주고 마트에서 사다가 걸어놓기도 하는데, 화장지가 제때에 안 걸려 있으면 누가 그랬는지 화장실 칸막이 문짝을 발로 차서 문이 화장실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있기도 합니다. 또 세면대에 비누를 가져다 놓으면 누가 들고 갔는지 금방 없어져버리고, 제 집에서 가져온 깨끗한 수건을 가져다가 걸어 놓으면 하루를 못 넘기고 누가 가져가고 없었습니다. 화장지가 귀하니까 자기만 쓰려고 통째로 몰래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화장지를 들들 말아서 화장실 내의 아주 구석진 곳에 숨겨 놓은 사람도 있더군요. 두루마리 큰 화장지를 새 것으로 걸 때는 통째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잠가 놓았더니 누가 주먹으로 두들겨 쳐서 화장지 걸이대가 부서져 있었는데, 그것도 고쳐야했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 회사 화장실 청소와 관리가 어느 정도 힘든지 아시겠죠? 하지만 수백 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이 다들 그런 것은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화장실 청소 깨끗이 해줘서 기분 좋게 잘 이용한다며 칭찬해주는 동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동료들의 격려와 칭찬에 오늘도 기분 좋게 회사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와 간부들도 현장 화장실이 깨끗해졌다며 회사 내에서 저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해주십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로 유명해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업종 불황으로 회사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제가 화장실 청소를 솔선 수범하다보니 회사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도 합니다.



착해서 상처 많은 우리 언니

정운조 경남 김해시 내동

하얀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작은 언니랑 나는 남동생 네 놈들이 들잔치에 다녀오는 길이다. 차 뒷좌석에 앉은 언니의 코고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운다. 지친 언니의 코고는 소리는 내 가슴에 아픈 울림으로 다가 온다. 몇 년 전 언니는 빚꽃이 문천지를 뚫을 무렵 형부를 먼저 보내고 50을 갓 넘긴 나이에 혼자가 되었다. 다행히도 언니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어 쉽게 취직은 했지만 성격만 좋았던 형부가 남긴 것은 대학생인 조카들과 빛 뿐이 있다. 몇 년간의 마음 고생으로 인해 언니의 얼굴은 오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언제나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였고 아파도 부모님 걱정 하실까봐 아파도 소리도 못하는 속 깊은 딸이 있다. 육남매의 둘째인 우리 언니! 어려서부터 착하고 영특했고 육남매중 가장 공부를 잘했지만 도박을 일 삼으며 농사일과 가정애소를 했던 아버지는 언니를 중학교에 보내려 하질 않으셨다. 바로 아래 남동생 때문이기도 했다. 언니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과 설득으로 인해 부모님은 언니를 중학교로 보내기도 하셨지만 교복과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키우던 염소를 팔기도 하셨다. 등록금 바깥 이틀만 염소를 팔러 장에 가신 아버지는 밤이 되어도 돌아오질 않으셨다. 노후으로 염소를 날려 중학교를 못갈 것이란 생각에 언니는 평생 고깃집만 하염 없이 바라보며 애간장을 태웠고 새벽녘이 되어



서야 아버지진 노후판에서 단 돈으로 맞춰준 언니
 의 고복도 잘고 등후함도 가지고 있었다. 팔러갔던
 영수도 다시 끌고 고갯길을 내려오시는 아버지가
 그레만큼 반갑고 고마운척이 없었다고 한다.
 노후판에서 논밭모두 날리고 산산까지 날린 아
 버지가 어떻게 그날 하루는 운이 좋으셨나 보다.
 그렇게 언니는 중학교를 갈수 있었고 집은 영수는
 언니의 가슴아픈 상처이고 추억이 되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도박으로 인해 온통
 회색빛이다. 도박으로 1년 농사를 날린건 역사였고
 우리는 고바와 보리밭으로 살아야 했지만 그보다
 부모님의 싸움으로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
 언니가 연살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진 노후를 크게 해서
 부모님은 크게 다투셨고 엄마는 어린 동생을 업고
 집을 나가셨다.



어린 언니는 엄마가 등네 연못에 빠져 들어
 가셨을 가와 밤 늦도록 연못가에서 엄마를 묵묵히
 울었다고 한다. 언니는 지금도 가끔 연못둑에서
 울고 있는 꿈을 꾸다고 한다. 가여운 울 언니!
 아버지진 이제 여든을 훌쩍 넘기셨다.
 성성한 백발과 꺾인 허리를 하신 채도 혼자된 언니를
 걱정 하신나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지만 많은 상처
 를 주신 아버지가 있다. 조금 더 일찍 정신을 차리
 셧다면 우리 자매들의 상처는 좋은 추억이 될수
 있었을 텐데. 참하고 상처가 많은 우리 언니에
 게도 활짝 핀 무련처럼 환하게 웃는 날이 왔으면
 하긴 바라 본다.

2015. 3. 27



안(眼) 건강, 안 건강하신 분?

IBK기업은행 선릉역지점 거래고객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진국, 김정섭 원장
글 | 김하늘 (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여성시대》 독자가 궁금해 할 만한 눈 건강 정보를 얻고자 방문한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안과답게 세련된 인테리어와 최첨단 설비들이 눈길을 끈다. 슬쩍 둘러봤을 뿐인데,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라는 IBK기업은행 선릉역지점 임영빈 지점장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이날 김진국 원장은 노안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년 독자들을 위해 눈 건강 지키는 법을 소개했다.

“40대가 지나면 신체 노화로 인해 노안과 함께 고혈압, 당뇨 등 대사 증후군과 녹내장, 백내장 등 망막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노안이 시작되면 ‘내 몸이 성인병과 눈 질병에 노출되기 시작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김 원장은 노안 수술을 고려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국내에 노안 수술을 처음으로 도입한 그는 노안 수술을 하고자 10명이 내원하면 실제로 수술을 하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노안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안이 온 분들은 이미 눈이 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



니다. 눈이 적응하는 2~3개월 동안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원근감을 느끼기 힘들거나, 야간 운전이 어려워지거나,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적응에 걸리는 시간과 나타나는 증상의 강도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 원장은 수술을 고려하는 고객에게 노안 렌즈 착용 등 사전 테스트를 실시한다. 눈이 편하게 적응하는지 힘들게 적응하는지 파악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안 수술 후에도 녹내장, 백내장 등 망막 질환을 치료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변호사, 설계사 등 책을 오래 보고 섬세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노안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김 원장은 40대 눈 건강을 위해 정기 검진, 자외선 차단, 루테인 섭취 등에 신경을 쓸 것을 권했다.

“40대가 넘으면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등 안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알아채기 힘들고, 완치가 힘들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녹내장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질환이므로 가족·친지 중 녹내장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6개월~1년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백내장, 각막화상, 황반변성 등의 안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자외선 차단을 꼽았다. 햇빛이 반사돼 다른 지역보다 자외선이 2배 이상 높은 스키장과 해변에서는 반드시

UV코팅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되도록 선글라스를 낄 것을 당부했다.

“40대가 되면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20분 이상 햇볕을 쬐어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선글라스를 꺼야 합니다. 참고로 창 넓은 모자나 양산을 써도 자외선을 50%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루테인'이라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40대 이후에는 루테인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밀도가 낮아진다. 노란 색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바나나, 당근, 케일 등을 많이 먹으면 황반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구건조와 루테인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비안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는 루테인 성분이 함유된 눈 영양제 '아이케어'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인체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전달되는 곳이 눈입니다. 눈만큼



피로에 민감한 부위도 없지요. 눈이 피로하다면, 그만큼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눈이 피로할 때는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토마토 등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김 원장은 급격한 시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 10대 성장기 청소년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성장기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격한 시력 저하와 안경으로 인한 골격 변화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드림렌즈 착용을 추천했다. 드림렌즈는 자기 전에 착용하는 특수렌즈로, 자는 동안 렌즈가 검은 동자를 눌러 각막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낮 시간 동안 시력을 회복시켜준다.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은 이들은 '2010 운동'을 실천하는 것



만으로도 눈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2분 가까이 보고, 10초 멀리 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가까운 곳을 오랫동안 보는 것이 시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수시로 6m 이상 먼 곳을 바라봐 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김 원장은 난시와 원시가 있으면 몸의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도수의 안경을 끼고, 근시가 있는 사람은 가까운 곳을 볼 때 안경을 벗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진국 원장(왼쪽)과 IBK기업은행 선릉역지점 임영빈 지점장(오른쪽)

TIP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가 원하는 눈 관리법 3가지

1. 멀리 보기: 눈을 쉬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6m 이상 멀리 보는 것이다.
2. 균형 잡힌 식단: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해야 시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
3. 정기검진: 특히 40대 이후에는 6개월~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한다.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 김진국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서초동) GT타워 B2층 (02-501-6800)

홈페이지 <http://www.bnviit.com>

이런 적금 어디 없나요?



시작은 가볍고 평생이 든든한~

IBK 평생든든자유적금

-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 📄 구성상품: 정기적금(자유적립식)
- 📅 적립금액: 월 1천원 이상 월 3천만원 이하
- 📅 계약기간: 1년제(최장 21년) ※최대 20회까지 자동 재예치 가능
- 📈 소득비례 자동증액 납입서비스, 분할 인출 가능
- 🏠 금리: 고시금리 연 1.75% + 우대금리 최고 연 0.3%p (2015.03.20 현재, 세전)

※고시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우대금리 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5-953호(2015.04.16)

※ 이 금융상품은 예금지보좌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리,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인당 최고 보유액'이며, 보유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1599-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민이웃 ☎ 1332, IBK기업은행 :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형용을 받지 않습니다. 유통경명 위반 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e-mail : ikethics@ibk.co.kr

121°C
No Preservatives
High Temperature Sterilized



121°C 구강청결티슈 & 신생아티슈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한 고온·고압멸균 물티슈 121°C는 방부제를 비롯해 어떤 화학물질도 사용되지 않은 순수 NO CHEMICAL 제품입니다.
고온·고압멸균이란? 뜨거운 열과 높은 압력을 동시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어떤 미생물도 없는 100% 안전한 멸균방식입니다.



Standard
TESTER 967

TESTER 967 Standard

TESTER 967은 자연상태의 식물에서 추출한 생약 아로마의 신비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TESTER 967은 아로마에너지를 조화롭게 블렌딩하여 연약해진 산모와 소중한 아기 공주님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로마테라피 물티슈입니다.

양희은·강석우
입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대전
92.5/91.3

삼척
101.5/93.1

춘천
92.3/88.9

서울
95.9

전주
101.7/94.3

대구
96.5

부산
95.9/106.5

제주
97.9/97.4
97.9/97.4

오지랴 많사 남시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의 심예린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에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엄마, 개운하셔? 목욕하고 나니 기분 좋지?”

어르신은 젖은 머리를 정성스럽게 말려드리는 심예린 씨 얼굴에서 땀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의 한 농가 앞에 멈춰선 분홍색 차 안에서는 엄마와 딸이 나눌 법한 이야기들이 오고간다.

“엄마, 아까 목욕할 때 보니까 등에 상처가 났네. 연고 발라드릴 테니 가만히 계셔봐. 그리고 아까 허리 아프다고 했지? 여기 파스 한 장 붙여 드릴까?”

요양보호사인 심예린 씨가 하는 일은 목욕서비스다. 홍천군 내에 살고 계신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목욕시켜 드리는 일을 한다. 심예린 씨가 하루 씻겨드리는 어르신들은 7~8명. 혹시라도 어르신들 감기 걸릴까 싶어 차 안에 뽕뽕 하게 보일러까지 틀고 전신을 씻겨드리니 한 분 목욕을 시켜 드리고 나면 온몸이 땀범벅이다.

어르신들은 몸도 깨끗하게 씻겨주면서 말벗도 되어주는 심예린 씨를 반긴다. 바빠서 부모 등 한번 씻겨 줄 시간 없는 멀리 있는 자식보다 낫다는 게 어르신들의 이야기다.

심예린 씨가 요양보호사가 된 건 4년째. 평소 할머니들이 그냥 좋





있던 그는 목욕서비스를 자원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씻겨 드리는 일은 고된 작업이다. 거기다가 깔끔한 성미이다 보니 일이 더 많다. 그날그날 씻겨 드려야 하는 어르신들 집을 방문하여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집안에 있는 어르신을 모시고 차에 오른다. 리프트를 이용해 조심조심 차 안으로 모신 어르신들께 심 씨는 차 한 잔을 먼저 권한다. 아무리 이동목욕서비스 차라고 하지만 차에 타자마자 금방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게 축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서다.

녹차건 커피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차를 한잔 드리며 근황을 묻고 지난번 목욕 후 기분이 어땠는지, 요즘 집안에 별일은 없으신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눈 후 목욕을 시작한다.

혼자 옷을 벗기 어려운 분들의 옷을 천천히 벗겨 드리고 의자용 욕조 시설에 앉혀 드리고 목욕을 시작한다. 의자를 밀면 자연스럽게 누울 수 있는 시설이 된다. 어르신들의 이름이 적힌 개인전용 때타올을 꺼내 구석구석 부드럽게 때를 밀어드리고 깨끗한 물로 여러 번 몸을 씻어낸 후 상처가 생긴 곳엔 연고를 아프다고 호소하는 곳엔 파스를 붙여 드린다.

목욕을 하는 사이 어르신들은 속 썩이는 자식 흉을 보고, 오래 전

에 떠난 영감님의 살아계실 적 이야기도 함께 나눈다. 말뱃이 없어 쓸쓸하던 어르신들은 물꼬가 터진 듯 목욕 내내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장구를 치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는 심예린 씨다.

할머니들께 드리는 차나 각자의 전용 때타올은 사무실에서 박박 우겨 따낸 전리품들이다. 차나 때타올은 따로 예산이 없었는데 아무리 어르신들이라고 하지만 남이 쓰던 때타올을 쓰는 건 싫을 것 같아 사무실에 건의하여 겨우 얻어냈다. 그래서 일터에서 붙여진 심예린 씨의 별명은 '오지랴'이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기어이 벌인다고 해서 얻은 별명이다.

그런데 요즘 이 오지랴 여사 심예린 씨가 거꾸로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1일 집이 다 불타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새해 첫날, 그날 날씨는 매섭기가 그지없었다. 늘 하던 대로 아궁이에 불을 때고 밥을 해먹고 따뜻한 바닥에 배를 깔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평하는 소리와 함께 마루 바닥에서 시작된 불이 건넌 방까지 옮겨왔다. 너무도 놀란 심예린 씨와 남편 그리고 아들은 불



길을 피해 밖으로 뛰어 나왔다. 119에 신고를 하고 불길을 바라만 보고 있는데 정말 순식간에 집 한 채가 타버렸다. 겨우내 쓰려고 갈 무리해둔 장작더미와 기름보일러 통의 기름으로 불길은 더 거세졌다. 그 사이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집은 다 타버린 상황이었다. 그렇게 눈앞에서 집이 홀연 사라졌다. 집 바로 뒤가 산이었던지라 산에 불이 번지지 않은 걸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했다.

일단 친정으로 가서 생활하며 틈틈이 집을 알아보다가 홍천읍의 집을 급하게 얻어 이사를 했다. 정말 손가락 하나 옷 한 가지를 챙겨 나오지 못했으니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입고 있던 옷과 휴대폰만 남았다.

딱한 형편을 알게 된 지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가져다주었다. 이불, 속옷, 양말 등을 사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집에 두었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다주신 분들도 많았다.



어떻게 들었는지 소식을 들은 어르신들은 집에 안 쓰고 있는 물건이라며 그릇과 프라이팬, 고춧가루, 통깨, 속옷을 건네주셨다. 목욕하실 날에 맞춰 찾아가면 어르신들은 심예린 씨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우시며 검은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주셨다. 가족도 없이 혼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형편인 어르신들이 주시는 물건을 받으며 돌아서서 많이도 울었다. 어르신들의 그 마음이 너무도 고마워 흘린 눈물이었다.

요즘 심예린 씨는 예의 쾌활함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불타 버린 집에 가서 남편이 저금통에 모아두었던 동전을 찾느라 소일하고 집 옆 밭에 옥수수와 고추를 심었다. 옥수수와 고추가 자라면 고마운 분들에게 한 박스씩 선물해야지 하는 마음에 힘든 줄도 모르고 농사를 짓고 있다.

불타 버린 집 마당 한 켠에는 버려진 종이 박스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가 길거리를 가며 주워온 것들이다. 이렇게 모은 빈 박스는 한 달에 한 번씩 고물상에 가져가 돈으로 바뀌온다. 그 돈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쓰인다. 그렇게 어르신 돕기를 한 지도 십여 년이 넘는다.

부창부수라고 했다가, 오지랴 아내를 둔 남편도 못지않게 오지랴이 넓다. 무거운 물건 들고 가는 어르신들 물건 들어다 드리고, 한적한 길을 그냥 걸어가는 어르신들 차에 태워 모셔다 드리고, 경찰 출신이었던 경험을 십분 발휘해 부당한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 발 벗고 나서서 행정적인 문제도 풀어드린다.


집은 전부 불타 버렸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오지랴 부부. 오지랴 부부의 오지랴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이다.

코너 속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 83 공감사연 공감전화 고모 엄마
- 86 장용의 단필총 난 네가 고참인 줄 알았어
- 92 나의 연애시대 나의 첫사랑, 진숙이
- 96 노래하나 추억하나 엄마의 노래 <동백 아가씨>

 공감사연 공감전화

고모 엄마

박찬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저에겐 4명의 자녀가 있어요. 제 딸 둘에 조카 둘, 이렇게 1남 3녀가 된 지도 벌써 4년째네요. 처음엔 조금 어려운 형편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친정 근처로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부부를 하던 동생네가 어느 날 갑자기 올케의 이혼 요구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갈 데 없던 남동생이 15평인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동생과 조카 남매 세 식구와 저희 식구 셋에 뺏속에 있던 9개월 아가까지 함께 살아야 했답니다.

15평 아파트에 남동생까지 6명이 사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좁은 화장실에 언니가 가기라도 하면 3살 꼬맹이가 “나두~ 나두~” 하는 바람에 날마다 화장실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애들이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갓 태어난 아기는 문간방에서 자는데 복도식 아파트라 어찌나 추운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감기까지 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3주를 이렇게 살더니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며 이래저래 돈을 구해서 어렵게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왕창 받기는 했지만 어찌 생각하면 이 복덩이 두 녀석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집을 사게 된 것 같아 한편으로 아이들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1남 3녀의 엄마가 되었고 갑자기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남동생이지만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조카들은 초등학교 1학년과 7살이었거든요. 저는 조카들을 큰딸, 큰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온 식구가 마트라도 가면 시선 집중은 기본이고, 8살, 7살, 4살, 1살을 줄줄이 달고 다니니 꼭 누군가 와서 살그머니 묻습니다. “한집 아이 맞아요?” 그럼 큰딸이 “고모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부터인지 큰딸은 마트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꼭 더 큰소리로 “고모~ 고모~”라고 부르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을 꼬박 6시 40분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8시 30분에 큰딸을 학교에 보내고 9시에는 나머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도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돌아서면 빨래는 산더미, 반찬은 한 끼 먹으면 금방 없고, 일곱 식구 빨래에 음식이며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을 해서도 남편이 퇴근을 하기 전까지 애들 씻기고 모든 정리를 끝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열심히 해야 이 아이들을 1년이라도 더 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고맙게도 까다로운 제 남편은 식구 일곱이 한집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정말 잘 참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아이들이 크니 생기더군요. 큰딸이 조금씩 불안해하며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제 자식처럼 키운다고 해도 막

상 애들끼리 싸움이라도 나면 제일 먼저 제 딸에게 먼저 손을 대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 제 딸이 자기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싸움도 나날이 늘더군요.

한 3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이러다 우리 애도 큰일 나겠다”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네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쯤 동생이 하는 자영업이 잘되어 1층에 가게를 하고 2층은 개조를 하여 살림집을 만들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을 내 아이처럼 키우던 애들의 집이 나가던 날, 저는 감기몸살에 기침에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남들은 뭐 3년 키운 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했어요. 밥 먹으면서도 과일을 먹으면서도 ‘이건 큰아이가 좋아하는 건데’ 하면서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시골로 귀농하신 친정엄마가 다시 나와서 돌보고 계십니다. 나이 드신 친정엄마께 미안해서 더 많이 아팠나 봅니다. 지금은 다행히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전학 간 학교에서도 잘 지낸다고 하니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큰딸 그리고 큰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비록 ‘고모엄마’지만 언제나 내 마음엔 우리 큰딸, 큰아들이 있어. 엄마가 너희들을 끝까지 돌봐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치만 아들 딸 사랑해!”

그리고 남편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자기야, 3년 동안 잘 참아주어서 고마워. 그나마 애들 어릴 때라도 데리고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게요. 우리 일곱 식구, 모두 사랑해요!”

장용의 단 · 필 · 층

난 네가 고참인 줄 알았어

김희주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6년 6월 27일에 논산훈련소를 거쳐 경기도 제3야전수송교육대 12주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것이 10월 27일. 양주 회천읍 덕정리에 있는 병참부대로 가게 되었다.

신병 신고를 마치자 신병이 왔다는 소리에 원숭이 구경하듯 우르르 몰려왔다. 그 중에 한 선임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

“야, 김희주! 니 운동 잘 하는 거 뭐 있노?”

“예, 축구선수 생활했습니다.”

“뭐라꼬? 우와! 정말이까?”

“그럼, 지금 행정반 앞으로 나온다. 실시!”

왕고참은 엄청난 환대를 해주며 농구공을 하나 가지고 와서는 “야! 이걸로 개인기 한번 해봐라”고 했다. 나는 군화를 신고 더블백을 등에 맨 채로 양발로 공을 튕겨 올리기부터 여러 가지 재주를 보여줬다. 한 5분여 지난 다음 두 왕고가 싸우더니 결국 이긴 왕고가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면서 햄빵과 건빵, 주스까지 먹으라고 준다.

자대 가면 훈련소보다 더 힘들 거라던 논산훈련소 조교의 말을 비롯하며 ‘군대 가서 운동 하나만 잘하면 편하다더니 진짜네. 히히히, 이제 군 생활 편하게 하겠네’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왕고가 준 빵과 음료를 다 먹고 나자 “김 이병, 니 저 밑에 하얀 건물 보이제? 거기 가 세면장이다. 이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세면장 가서 샤워하고 와라.” 세면장으로 들어서니 처음 보는 군인들이 묻는다. “아! 오늘 신병 온다더니 니가 새로 온 신병이까?” 나는 그 세면장에서 “네! 이병 김희주!”를 수십 번 외쳐야 했다.

그 중에 고참 한 명이 말한다. “정 이병, 니 여기 김 이병 샤워하고 나면 같이 데리고 내무반으로 와라. 알았냐?” 하는 소리와 함께 정 이병은 나와 샤워를 했다. 샤워를 하던 중, 고참들이 다 나가자마자 덩치는 강호동이요 얼굴은 헬크인 보기만 해도 쫄 수밖에 없는 정 이병이 갑자기 내 등짝을 한 대 치면서 “야 김 이병, 니 이 수건으로 내 등 좀 밀어봐라.”

“네! 이병 김희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건으로 등을 밀고 있는데 참 질문을 많이도 하셨다.

“야, 나도 자대 온 지 4개월 되었는데 처음 왔을 때 고참들 등 다 밀어 줬고 지금도 밀고 있다. 니 훈련소 어디 나왔노?”

“예. 논산 나왔습니다.”

“아, 그래. 논산 군번이까? 편하게 지냈겠네?”

“아닙니다. 고생 무지했습니다.”

“야 임마! 나는 사단 나왔어. 논산 편한 거 다 알려 자식아!”

“네 알겠습니다. 좀 편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지었다.

“야! 김 이병, 니 여동생 있냐?”



“예, 있습니다.”

“정말로? 다음에 면회 오라 해서 나한테 소개시켜 줄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야 자식이 평생 독신으로 늙어도 여동생 너는 안 준다’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랬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아 대답했다.

“야, 니 등 잘 미네. 시원하이 좋다. 근데 김 이병, 니 나이 몇이고? 되게 어려 보이네?”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 왔습니다. 21살입니다.”

“하하하! 완전히 영계네. 나보다 6살이나 어리네.”

“예? 6살이라고요?”

난 화들짝 놀랐다.

“어떻게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군대 왔습니까?”

“응, 대학원 다니다가 왔다. 그러다 보니 나이를 마이 묵었다. 여기 병장들도 나한테 함부로 잘 안한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병장들도 나보다 어리거든. 군 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알았재?”

“네, 알겠습니다. 저도 형님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최고조로 불타올랐고 정 이병은 나에게 “이제 나가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내무반 가자.” 우리 둘은 세면장을 나왔고 정 이병 동기들을 만났다.

“야, 정 이병! 니 신병 데리고 혼자 재미 다 보네. 야, 신병! 이리와 보라!”

이상하게 정 이병 동기들은 모두 대학 다니다 와서 나이가 나보다 두세 살 많았다. 정 이병 동기들은 나에게 담배를 주면서 한 대 피라고 얘기도 하고 ‘같은 이병끼리 서로 돕고 지내자’ 또 ‘그놈 참, 귀엽게 생겼네’ 등등 오랜만에 신병을 봐서 그런지 다정하게 나에게 대해 줬다. 어떤 이등병은 집요하게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니 참 잘 생겼다. 니 동생 있나?” 하며 소개시켜 달라고 졸랐다. 그러던 중에 박 이병이 나에게 질문을 했다.

“김 이병, 니 논산 나왔다고?”

“네!”

“그럼 몇 월 군번이냐?”

“예, 6월 27일 입대했습니다.”

“헉! 뭐라고?”

순간 4~5명의 정 이병 동기들이 놀라 자빠지는 현상을 보였다.

“뭐? 뭐? 뭐라고? 헉! 그럼 6월 군번이네.”

나는 왜 이 사람들이 놀라는지 몰랐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야! 그럼 김 이병이 우리 고참 아이가? 6월 27일이라도 달로 끊으니까 6월 군번인데, 우린 7월이잖아?”

그 순간 가장 놀란 정 이병이 얘기를 한다. 자기들은 7월 1일 군번, 나하고 4일 차이였다.

“야, 우리하고 4일 차이니까 뭐 동기로 끊어 주겠지? 잘하면 우리하고 동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야, 괜찮아.”

정 이병은 자기 동기들끼리 위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데 이등병이 알거나 했을까? 그날 저녁 왕고가 일어서서 동기를 정해주었다.

“자! 모두들 주목! 야! 7월 군번 이등병 기립!” 하는 소리와 함께 6명이 일어섰다. “다음 6월 군번 기립!” 팔랑 1명, 5월 군번 기립 팔랑 1명이었다. 왕고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다가 하는 말이 “야, 5월 6월 군번이 합쳐서 현재 2명이니까, 김 이병까지 3명은 동기로 한다. 알았나?” 나는 “네!” 하고 힘찬 대답과 동시에 우측으로 고개를 돌려 졸병으로 전락한 7월 군번들을 쳐다봤다. 속으로 나는 뭐 내 여동생을 소개해 달라고? 그라고 내 머리 쓰다듬은 놈, 나보고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한 놈, 축구하다가 자기 공 뺏으면 죽이겠다는 놈 등등 그렇게 얼굴을 다 쳐다봤다. 그러나 7월 군번들은 나와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포근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기상과 동시에 점호를 끝낸 다음 하루 일과를 마쳤고 저녁을 먹고 난 자유시간에 정 이병이 나를 불렀다.

“저... 김 이병님, 잠깐 밖으로 나와 주십시오.”

화장실 뒤로 나가니 7월 군번 6명 모조리 알아서 집합을 해 있었다. 아! 그런데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고 훈련소 마치고 바로 자대로 온 사람들이라 자대 짬밥은 나보다 수개월씩 많은 능구렁이들이 아닌가? 그 6명 앞에 나는 뭐라고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니들 왜 여기 모였냐?”

정 이병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다.

“김 이병님, 우리 동기들 용서해 주십시오. 김 이병님이 후반기 교육 3개월이나 받고 오신 걸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훈련소 마치고 바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김 이병님도 우리하고 똑 같은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며 모두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나는 자대 온 지 이틀 만에 본의 아니게 자그마치 6명의 무릎을 꿇어 앉힌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엄연히 군대 인지라 나는 말했다.

“니, 어제 축구하다가 니 공 뺏으면 직인다 했제? 그리고 너 내 여동생 소개해 달라고 했제? 또 너, 나보고 귀엽다고 형이라 생각하라고 했제? 이 자숙들이 군대는 나이가 아니라 계급이 깡패야 임마! 알았어!”

흐흐흐,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야! 전부 일어나라. 그리고 자 담배 한 개씩 입에 물고 나하고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은 이 담배 연기에 담아 허공에 날린다.”

그렇게 한 모금 담배 연기로 우리의 우정은 깊어갔고 내가 병장을 달고 제대를 기다릴 쫓 내 졸병들은 대학 다니다 오고 대학원 다니다 온 혜택으로 하나 둘 먼저 다 제대를 하고 가버렸다. 지금은 모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다.

나의 연애시대

나의 첫사랑,
진숙이

한정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980년 5월 중순의 어느 날, 따뜻한 봄볕을 맞으며 세 청년이 길을 떠납니다. 세 청년은 한 마을에서 자라고 같은 고등학교를 함께 졸업한 친구 사이로 학교를 졸업한 이듬해에 마산에 있는 회사 한일 합섬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이었죠.

마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일합섬 바로 옆에 있는 허름한 방을 하나 얻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주간, 야간, 잔업까지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쉬는 날에는 근처 공터에서 공도 차고 달리기도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황금 같은 쉬는 날에 공터로 달려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터 바로 옆에 여자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면 아파트처럼 지어진 여자 기숙사 창문에서는 “우와~ 직인다~,” “오빠, 멋져요~” 환호도 들려왔고,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 시선이 싫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정확히 1981년 8월 20일로 기억합니다. 그 날도 공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3층 창문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한 아가씨가 쪽지를 하나 떨어뜨리더군요. <운동한다고 힘드실 텐데 물 한잔 드릴까요?>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좋다고 대답했고, 그녀는 잠시 후 긴 끈에 물병을 달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에 또 쪽지를 달아서 기숙사로 올려주었습니다. <물, 정말 달게 잘 마셨습니다. 그 보답으로 우리가 빵을 대접하고 싶은데요. 잠깐 내려오실래요. 저희는 세 명입니다.>

몇 분 후에 아가씨 세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순간, ‘도 레 미’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씨들의 키가 정확히 ♪도♯, ♪레♯, ♪미♯로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 중 제일 키가 큰 아가씨는 충청도에서, 두 번째 아가씨는 전라도 그리고 제일 작은 아가씨는 경상도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처 빵집으로 가서 빵과 음료수를 먹으며 짝을 정했는데 제 짝은 바로 두 번째로 키가 큰 전라도에서 왔다는 ‘진숙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숙이에요. 섬유라인에서 일해요.”

“저는 정우입니다, 한정우. 근데 참 예쁘시네요.”

“에이~ 몰라요. 공터에서 운동하는 모습 자주 봤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 여자 기숙사에서 외출을 허락하는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자취방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왜 그리 빨리 가는지, 또 그녀를 기다릴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요? 어쩌다 제가 주간근무를 하고 그녀가 야간근무를 하는 날이면, 저는 우리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통해 일을 하는 그녀를 한참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면서 저는 저 자신도 모르

는 사이에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렸던 거 같습니다. 하루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은 심정이 어떤 것인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라면을 사들고 자취방을 찾아왔던 그녀가 처음으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토요일에는 꼭 오겠지’ 했는데 토요일에도 그녀는 오지 않았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가, 아니면 몸이 아픈 건가.’ 아무튼 그날 이후 그녀는 우리 자취방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제 친구들은 군 입대를 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저는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정신없이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부서를 옮겼는지 옥상에서도 그녀를 볼 수 없었고, 기숙사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도 봤지만 그녀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집 옥상에서 창문을 통해 그녀를 볼 수 있을까 싶어 밤을 꼬박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다음 날은 몸살에 가슴앓이까지 겹쳐 사흘 동안 앓아누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친구 충청도 아가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나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숙이가 고민 많이 했어요. 정우 씨 친구 중에 광철 씨가 정우 씨 얘기를 했거든요. 진숙이는 정우 씨가 어렵게 혼자 자라온 것도 부담이 되고 또 학교 다닐 때 방황했던 것도 마음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진숙이 더는 찾지 마세요.”

그때 친구 광철이는 저의 가정사부터 학창시절 이야기까지 안 좋은 얘기만 골라서 진숙이에게 했다는 겁니다. 광철이의 목적은 나와 진숙이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숙이와 사귀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진숙이가 왜 저를 멀리하고 하루아침



에 마음이 변했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그 후 저 역시 마음을 정리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며 흘리는 땀방울과 함께 그녀와의 추억도 깨끗이 씻어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렸는데도 가끔 그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은 왜일까요? 사랑하기보다는 원망으로 막을 내린 짧은 추억이었지만 지금 진숙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문득문득 궁금해집니다. 그저 잘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하나

엄마의 노래 〈동백 아가씨〉

애청자



올해로 67세인 엄마는 인생은 60부터라며 7년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일이라고는 농사일 밖에 모르고 저축이란 것도 모르고 번 돈을 모두 자식을 위해 쓰신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셔서 혼자 농사를 지으실 수 없어 새로운 일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아 엄마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지요.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너무 하다고 해야 할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식집에서 엄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하루 12시간 쉬는 날 없이 매일 7년을 일하셨습니다.

엄마가 첫 월급 받던 날이 생각나는군요. 단 한번도 월급이란 걸 받아 본 적 없는 엄마는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었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던 날 정말 좋아하셨어요.

“자식한테 용돈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받는 사람에게는 적은 돈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 돈을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알겠어. 허튼 데 돈

쓰지 마라”고 하셨지요.

몇 년 전에는 친척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마땅한 옷이 없어 아버지께서 엄마 옷을 골라주라 하시더군요.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엄마는 화려한 옷 가게 대신 난전에서 파는 옷을 사려고 하셨는데 저는 자주 사드리는 것도 아닌데 좋은 걸 사드리고 싶어서 옷 가게로 모시고 갔습니다. 엄마는 고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하셨는데 전 창피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엄마의 속옷이 얼마나 낡았는지 다 늘어지고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그 속옷은 제가 입다가 늘어나서 버리긴 아깝고 입기도 그래서 내버려둔 속옷이었는데 엄마가 그걸 주어 입은 겁니다. 순간, 혹시라도 누가 봤을까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그 옷에 붙은 가격표를 쓱 보시고는 “이 옷 별루다. 엄마랑 안 어울린다” 하며 가게를 나가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화가 나서 엄마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억지로 옷을 샀습니다.

“니가 그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 왜 그리 비싼 옷을 사. 내가 비싼 옷 입으면 표가 난다니? 싸구려 옷도 깨끗이 빨아 입으면 깔끔한 것을 왜 허튼 데 돈을 써.”

집에 오는 내내 혼잣말하는 엄마에게 화가 나서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너무했지요. 시어머님이 아프면 병원비까지 드리며 혹시 우리 아이들 봐주시느라 힘든 게 아닌가 싶어 전전긍긍하면서 엄마가 아프다면 “엄마! 나이 들면 다들 아프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모질고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딸은 엄마 편이었는데 전 왜 그런 걸까요? 누구보다 아끼며 살뜰하게 살고 있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날도 엄마에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그러다고 뭐 나아질 것도 없잖아.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아도 잘사는 사람 많아요. 제발 그러지마.”

순간 엄마의 얼굴은 굳어졌고 우리 모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그러시더군요.

“그래, 구질구질 그만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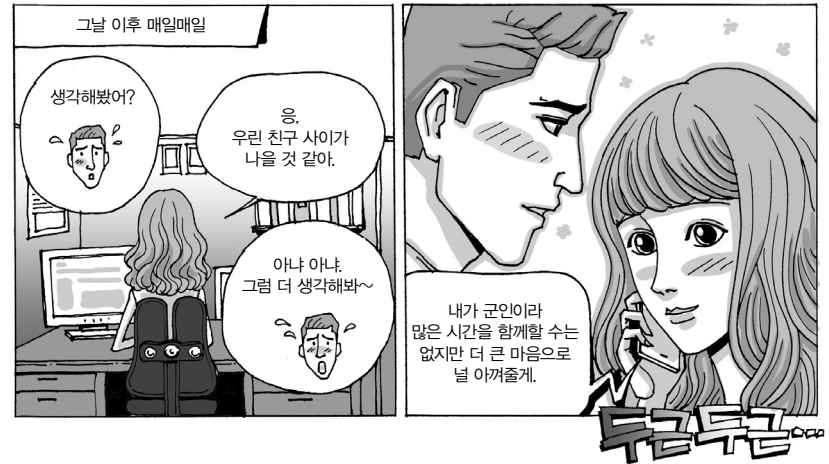
그러더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다며 노래방에 가보자고 하셨

습니다. 우리 둘은 좁은 방안으로 들어갔고, 엄마는 제일 먼저 〈동백 아가씨〉를 찾아 달라고 하셨어요. 노랫말에는 엄마의 힘든 삶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끔씩 울먹이기도 했지만, 차마 딸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는지 끝까지 눈물을 참으셨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자니 저는 더 이상 노래할 힘이 나지 않았어요. 〈동백 아가씨〉가 끝이 나고, 엄마는 새로운 경험인지 신기해하며 몇 곡을 더 찾아 달라고 하셨는데 엄마의 노래는 한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바닥이 났지요. 노래방을 나오면서 “오늘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소녀 같이 웃으셨던 엄마. 그 날 밤 집으로 돌아간 저에게 엄마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딸 너무 고맙다. 엄마가 너무 구차하게 살아서 미안해. 하지만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번쩍 번쩍 비단웃 입으면서 맘이 불편하면 뭐하냐. 내가 이렇게 아끼고 살아서 너희들 남부럽지 않게 시집 장가 다 보냈는데 뭐가 부끄러워. 그래도 우리 딸이 그런 엄마가 싫었다면 미안해. 잘 자라.”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 보니 엄마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알겠는데 왜 그리 모진 말로 엄마를 아프게 했을까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늘 생각했던 저였는데 엄마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잘사는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얼마 전 엄마는 평생의 동반자이던 아버지를 떠나 보내셨습니다. 혼자라 많이 힘든데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일은 그만두라고 말려도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힘들다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할 거라고 고집이십니다.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노래, 이미자 씨의 〈동백 아가씨〉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난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4년간 하고 지금은 벌써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들의 육아

글 |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트위터 아이디 @suhs)
일러스트 | 조신애

요즘 방송을 보면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의 변화를 두고 볼 때 아빠들의 육아 참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빠들은 육아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아빠 육아가 방송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아빠들의 육아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아빠들은 육아에 대해 전혀 배우지도 준비하지도 못한 채 아빠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육아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얻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엄마를 보며 엄마 역할을 배울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육아에 대한 직간접적 체험과 정보 습득을 하게 됩니다. 반면 남자들은 육아를 직접 담당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육아에 대한 정보를 들을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들도 아이를 낳기 전에 불안하고 낳고 나서는 당황하곤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의 출산을 보게 되고 아이를 낳고서야 초보 수준의 학습을 시작합니다. 육아는 실전인데 이제 막 훈련 교본을 들여다보며 걸음마를 하는 것이 아빠들의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엉성하기 이를 데 없고 모르는 것 천지입니다. 열심히 해도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저는 이런 아빠들에게 초보니까 그런 모습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운전을 못하는 것이나 남자들이 육아에 미숙한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고 경험하고 관심 가진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시간이 필요할 뿐 어느 정도 이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육아든 운전이든 평균적인 수준을 해내는데 대단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나는 초보라서 못하는 것일 뿐이란 마음을 갖고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십시오. 오래지 않아 꽤 잘해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육아는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배우려는 마음 없이 아내가 시키는 것만 겨우 하니까 실력이 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와 마음이 통하는 아빠가 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잘해줘도 아이들은 놀 때만 아빠와 함께할 뿐 힘들면 엄마만 찾습니다. 아빠는 의지할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죠. 그런 상황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아빠 아니면 선택지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엄마에게 주말에 일부러 외출을 하도록 하고 아빠가 단독으로 아이들을 돌봐 보십시오. 처음부터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힘 뺄 필요도 없습니다. 꼭 챙겨야 할 것을 챙기고, 아이에게 자유도 주고, 아이 옆에서 가볍게 같이 놀아주면 됩니다.

많은 아빠들이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해 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놀이를 주도하기보다 아이가 노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아이가 시키는 것을 조금씩 해주면 됩니다. 단, 아이가 노는 것을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아이는 자기를 흥미롭게 보는 눈빛을 좋아합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의기양양해서 더 즐겁게 놀게 되죠. 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는 시점은 부모가 자기를 쳐다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놀이가 재미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아이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어야 부모도 결국 편해집니다.

아이가 웃으면 같이 웃고, 가끔 과장된 목소리로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그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혼자 잘 놀니다. 아이가 뭘 하라고 시키면 그때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놀이에 끼어들어 뭘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라는 대로만 하고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내 놀이가 아니라 아이의 놀이이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구나 하며 느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루하다는 표정만 짓지 않고, 딴 짓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잘 흘러갈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정도는 이벤트로 아이를 즐겁게 할 놀이를 하나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불에 아이를 태워서 끌고 다니거나, 풍선을 갖고 치면서 놀거나, 동물 흉내를 내면서 쫓아다니기 놀이도 좋죠. 이

런 놀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빠 놀이’에 대한 책 한 권만 사도 1~2년은 써먹을 것이 나옵니다. 인터넷만 찾아봐도 여러 놀이가 나와 있고요. 다만 이런 놀이는 하루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여러 번 하면 아빠가 너무 힘들고, 아이는 아빠만 보면 강렬한 놀이를 해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혹시 엄마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바로 울고 떼를 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를 찾는 아이 옆에 머물면서 네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는데, 지금은 엄마가 없고 아빠가 잘 챙겨줄 것이라고 달래주세요. 바로 달래지지는 않겠지만 아빠가 차분하게 옆에 계속 머물면 결국 아이는 진정이 됩니다. 아빠가 아이의 울음에 조금만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간 진정이 될 듯싶으면 아이의 흥미를 끝만한 장난감이나 먹을 것, 또는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놀이를 제시해보세요. 아이에게도 기분을 바꿀 명분이 필요하니까요.

아빠가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계획을 다 세우실 것입니다. 거래처와 협상을 할 때도 상대의 공격이나 제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계획하시겠죠. 그런 계획과 준비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죠. 처음 아이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낼 때도 아빠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과 예측, 준비입니다.

적어도 처음 한두 번은 아이가 보일 수 있는 반응들에 대해 나름의 대처법을 준비한 후 아이와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아이 앞에서 부모다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몇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준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자신감만 갖게 된다면 이미 아빠들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공연을 마치고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5월은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17년 만에 초심으로 돌아가 대학로 소극장 무대에 섰을 때 난 마치 어린 날 살던 동네를 다시 찾은 듯했다. 첫날 빼고는 둘째 날부터 객석이 채워지더니 공연이 사흘째, 나흘째 되면서부터 매진 사례가 되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뿌듯함이다.

기본적으로 누군들 열심히 안하겠는가? 최선을 다한 열심!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가. 하지만 공연은 이상하게 자기 노력과는 상관 없는 변수들이 많다. 될 듯하면서 안 터지고 실패했는데 뽕뽕 터지는 경우도 있다. 사람의 노력과는 별개로 운도 따른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 5월 감기는 여태껏 걸려 본 감기 중 최악이었다. 맨 처음 우습게도 목이 간질대는데 아무래도 미리 병원을 가는 게 나을 듯해 이 비인후과를 찾아 갔기 망정이지 정말 일생일대 큰 사단이 날 뻔했다. 방송도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엉망이었으니...

병원에 들어서면 곳곳에서 나와 같은 기침을 한다. ‘그르렁 세르륵’ 하는 천식 기침소리. 5월 초, 중순에 꽃가루가 날릴 때 알레르기성 천식환자가 감기에 걸리면 낫기도 힘들고 골치 아프다고 한다. 나의 경우 34년 전 암수술한 뒤에 지독한 알레르기 증상으로 매일 매일 건디기 힘들 정도였다. 눈물, 콧물, 재채기 삼중주를 눈 뜨자마자부터 종일 해대는데 사람이 진이 다 빠지고 살 일이 아니었다. 그때 연 1회 맞고 알레르기 증상을 없애는 주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국민학교 동창인 의사더러 “내가 네 식구라면 이 방법을 권하겠니?” 했더니 고

개를 짓기에 난 그냥 견디고 지냈다.

당시 검사로 알아낸 건 고양이털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십 수 년 뒤, 성대에 혹이 생겨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을 때 수술 전 검사를 하면서 내가 알레르기성 천식이 있다는 걸 알았다. 성대는 전신마취를 해야 했는데 마취 중에 기도가 부어오르거나 하면 그대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불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그때부터 온갖 좋다는 것을 찾아하면서 발성 연습으로 목을 살살 풀면서 달래고 아껴가며 이겨냈다. 당시 의사는 혹의 크기나 혹이 난 위치 등을 들어 앞으로는 노래가 힘들지 모르겠다 했다. 하지만 그 후로 18여 년 동안 나는 수백 번의 큰 공연을 치러냈다. 5월 감기는 혹시라도 앞으로 감기 걸릴 때마다 이 감기 독하다 내 생애 최악의 감기라고 떠들지 않으려나 싶어진다. 걱정해주신 여성시대 식구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다행히 큰 탈 없이 딱 한 번 무대에서 기침한 것 빼고 사고는 없었다.

사고로 공연은 끝내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2주간 공연을 마치고 다음날 일단은 여성시대 식구들과 맛난 회식을 했다. 여자들만 여섯이 오뵈었다. 수다 또한 재밌었다. 각자 기르는 개 이야기며 신변잡사, 누가 들으면 뭘 중요치도 않은 저런 얘기로 저렇게 재밌을까? 할 정도로 웃고 떠들었다.

공연 마친 다음날의 기분은 안 해본 이들은 모를 것이다. 텅 빈 허전함은 내겐 없다. 늘 개운하다. 다시 어떤 노래로 이 여름을 보낼까 정리 중이다. 감기약 기운으로 휘지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가게에 가서 아이소펄 실컷 하고 나를 위한 작은 선물들을 샀다. 작은 쟁반 하나, 구운 생선을 담기 좋게 생긴 생선 모양의 접시, 물소 빨로 짚은 작은 스푼 두 개, 그리고 맛있는 과일을 사서 집으로 왔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강석우 | 여성시대 진행자



대학 다니던 시절, 연기 공부와 연출 공부를 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 공부가 사회에 나와서 내 직업으로 연결될 거라는 확신도 없이 그저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선배의 소개로 우연히 배우선발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물론 배우가 되겠다는 꿈보다는 상금과 부상으로 주어지는 많은 혜택이 끌렸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영화진흥공사에서 뽑는 행사여서 대단히 규모도 크고 신뢰가 있는 대회였다. 아시는 바와 같이 800:1로 당당히(?) 뽑히고 말았다. 그 후 여러 곡절과 한가하게 보낸 시간도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정말 좋은 계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이쿠! 벌써 38년의 일이네.”

그 신인배우를 뽑는 대회는 애석하게도 한 번의 행사로 끝이 나고 말았는데 깊은 내막이야 알 수 없지만 부상으로 걸었던 1년에 두 편 이상 주연 보장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

나는 참 바보다. 내가 대단해서 뽑힌 줄 알고 있었으니, 시간이 많이 지난 요즘, 그 대회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내가 뽑히자 필요가 없어진 나를 위한 축복의 행사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길이 열린다는 말이 있는데... 맞다, 누군가 나의 길을 열어 준 거였다.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데 30여 년 이상이 걸렸으니 나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지난 달 20일부터 코엑스에서 서울오픈아트페어가 열렸는데 그 전 사회에는 5, 6년째 계속 출품을 하고 있다. 화랑에 그림 감상 다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만큼 그림 보는 걸 좋아하게 된 나는 78년부터 화랑 순례를 다녔나보다. 그리고 미술을 전공한 아내를 만났고 시집 온 아내는 학생 때 쓰던 화구를 챙겨 왔다. 세월이 많이 지난 어느 날 그림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내의 도구를 써서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2005년인가 드디어 ‘부부2인전’을 인사동에서 열게 되었고 그 후 30여 차례의 전시회를 열고 있다. 색소폰도 연주 날짜가 잡혀야 맹렬히 연습하게 되고 그때 실력이 느는 것 같은데 그림도 그렇다. 전시회 날짜가 잡혀야 밤이고 낮이고 그림 생각도 하고 새벽까지 그리게도 된다. **생각이 변했다고 할까 아니면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할까 속사람이 겸손해졌다고 해야 할까. 하여튼, 내 중심으로 보던 세상을 감사의 시각에서 나를 보게 되었다.**

SOAF(서울오픈아트페어)에 참가하게 된 것도 내가 ‘나가 주는 걸로’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나를 초대해 줘서 계속 그림을 그리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고 싶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 주춤해질 때도 있고 휴업이(?) 길어지면 완전히 접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에게 연주든 전시든 끊임없이 ‘콜’이 오는 걸 보며 그 모든 상황이 감사할 뿐이다.

100세 시대라는데 나이가 들어 방송 일이 뜸해질 나이가 오면 그때는 어떤 일로 소일하며 지낼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 머지않은 미래를 준비토록 해주시는 누군가, 그리고 주변 분들이 내 인생의 고마운 분들로 기억될 것이다. 6월에도 두 번의 연주가 예약되어 있으니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악기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가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 우루과이 대통령

글 |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한 나라의 정치와 지도자는 그 나라의 국민 수준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 그러한 지도자를 선정하고 권력을 맡기는 선거에서 이미 국민은 자신의 수준만큼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매년 비판하고 동의하지 않으면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이 반복된다. 우리나라가 갖는 초고속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성과는 실제 지도자의 역량보다는 그러한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민들의 열정과 패기 때문이었다. 정치적으로 건전한 국민을 배양하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과 역사적 의무이다. 그런 지도자를 보고 싶다면 호세 알베르토 무히카 코르다노, 우루과이의 정치지도자 무히카 전 대통령을 책으로 만나보자.

우루과이 제40대 대통령, 현 우루과이 상원의원, 1960년대 군사독재에

맞서는 게릴라 조직 투파마로스 리더로 활동했으며, 1970년대 13년간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했고, 여러 차례 탈옥하기도 했다. 1985년 석방되어 민중 참여운동에 참여하였다. 1994년 하원의원, 1999년 상원의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농축수산업 장관을 지냈다. 2009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타바레 바스케스 대통령에 이어 우루과이에 두 번째 좌파 정부를 열었다.

친근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무히카는 재임 기간 내내 국민들의 높은 사랑을 받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의 지지율보다 높은 65%로 지난 3월 임기를 마쳤다. 우루과이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참된 행복의 가치를 끊임없이 역설하며, 스스로 검소한 삶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게릴라 전사에서부터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어온 그는 '체 게바라 이후 가장 위대한 남미 지도자로 불리며, 노벨평화상 후보에 두 차례 올랐다.

전 재산 1987년 식 식은 자동차 한 대, 대통령 월급의 90%를 기부하고, 노숙자에게 대통령궁을 내주는 등 전 세계 어느 지도자들보다 검소한 대통령이자 국민과 가까운 대통령으로 유명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페페 Pepe'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상원의원으로 돌아온 그는 지금도 몬테비데오 외곽의 허름한 농가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아내이자 정치적 동반자인 루시아 여사, 한쪽 다리를 잃은 강아지 마누엘라와 함께 살고 있다.

도덕적 신뢰와 인간적 믿음을 전제로 무히카는 실제 우루과이에서 가능하지 못할 진보적인 정책들을 쏟아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로마카톨릭 신자들인데도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과 동성결혼법을 통과시키고,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까지 가능케 했

다. "마리화나에 찌든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수많은 마리화나 불법판매상이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옳다면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신념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분명, 국론이 분열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만들 수 있음에도 지도자의 도덕적 신뢰와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진지한 열정은 설득과 통합의 정치로 귀결될 수 있음을 무히카는 보여준다. 우리도 그런 지도자를 보고 싶고 갖고 싶다는 마음의 시작이 적극적인 선거 참여와 이성적 선택으로부터 입을 느끼게 해 주는 책이다.

미겔 앙헬 캠포도니코 | 21세기북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여성시대
 양혜은 · 강성우입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서울 95.9 부산 95.9/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91.3 전주 101.7/94.3 마산 88.9
 춘천 92.3/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일약)/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92.7 충주 96.1 삼척 101.5/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이 많은 멤버십 카드가 바코드 하나에 쏙!



카드 결제와 멤버십 적립을 한장에
원카드 투플레이
IBK-Syrup카드

다양한 멤버십 카드를 원바코드에 담은 새로운 카드
 이제 **IBK-Syrup카드** 하나로 편리함을 누리세요.



*발급대상: 개인(본인) • 발급구분: 신용, 체크 • 연회비: 신용(UnionPay 5천원, Master 7천원, 체크(UnionPay)면제)
 세스: 세스 조건 등 상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내선) 및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5-955호 (2015.04.16) CP043 게시기한 : 2016.04.15

이 연회비는 2015.04.16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가맹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6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15.05.12) 이후 5년 이상 연속 출소,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가에도 불구하고 다할과 같은 사자가 발생한 경우 카드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일, 두산, 장영위, 천제비, 금공화강 등에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와 발생 시 서비스의 노역에도 제휴업체가 영업적으로 부가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중간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카드 신규 출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서우업장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 출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전부터 해당 개별고지 해드립니다. * 개별고지 방법: 카드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하나 2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는 야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로서만 공유함으로써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규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민신문고(☎120), IBK기업은행 : ☎800-800-0179, IBK기업은행 콜센터) * 상담 문의: ☎800-800-0179, IBK기업은행 e-mail:ibkethics@ibk.co.kr, 신용카드 상담은 기계결제에 위함입니다. * 연회비 미지급 (최저 연 16.9%~최고 연 24.0%)은 정상 이자와 및 연세 입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